

등대

제 5 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바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바다의 크고 넓은
단순히 지구 표면적과 같은 물리적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인류의 삶과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계는 생존과 생활에서부터,
크계는 인류 역사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간과 바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도 불변의 사실일 것입니다.

바다는 이렇듯, 인간의 희로애락은 물론,
인류의 역사까지도 포용하는
위대한 자연입니다.

등대

제 5 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목호등대

Contents

발 간 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6
축 사	울산항만공사 사장	8
심 사 평	소설 김성달	10
	시/시조 이혜선	11
	수필 오길순	12
대 상	소설 윤재민	꽃	16
최우수상	시/시조 김형미	소금꽃의 시간	38
	수필 박금선(박금아)	테왁, 숨꽃	42
우 수 상	시/시조 김영욱	넙치의 잠	52
	시/시조 유종인(육명원)	들망어업	54
	시/시조 조주안	소라계의 집	56
	소설 김필주(백진)	오징어와 참치	60
	소설 조요섭	그림자고래	82
	소설 이유겸	입수(入水)	110
	수필 이성은	형의 그림자	142
	수필 박하성	노를 저으며	150
	수필 김임순	집어등이 밝은 이유	156

바다, 삶의 이야기를 담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바다의 크고 넓은 모습은 단순히 지구 표면적과 같은 물리적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인류의 삶과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게는 생존과 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인류 역사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간과 바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에도 불변의 사실일 것입니다.

바다는 이렇듯, 인간의 희로애락은 물론, 인류의 역사까지도 포용하는 위대한 자연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바다를 재조해양(再造海洋: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다)의 자세로 지켜내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등대문학상’은 바다와 인간이 엮어가는 무수한 파노라마적 이벤트를 문학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수상작들을 만나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바다처럼 넓고 깊게 많은 분들과 교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등대문학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와 노래들이 더 크고 더 넓게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등대문학상’ 공모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한국문인협회, 울산문인협회, 울산항만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모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응모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공모과정 내내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



21세기는 바다의 세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치러진, 제5회 등대문학상의 수상 작품들을 한 데 모아 이렇게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아쉬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등대문학상 공모전의 주제인 ‘바다’와 ‘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 나름 생각해보았습니다.

21세기는 바다의 세기라고 합니다. 바다는 식량과 물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아우르는 생존과 번영의 키워드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이 앞다퉈 해양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 백년 동안 바다를 멀리하여 변방의 역사를 보냈지만, 오히려 북쪽길이 막히면서 바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50여년 동안 바다를 통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한편 문학은 인간의 감성과 정신을 언어로 빚어낸 예술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

문학은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맞아 바다에서 삶을 일구고 해양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기에 더욱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출판작 가운데 선정된 수상 작품들이지만, 더 많은 독자들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높여야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집을 통해 해양문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큰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될 등대문학상 공모전은 물론 다양한 해양·항만관련 정책과 행사 등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5회 등대문학상 공모전 심사에 참여하여 수고해주신 한국문인협회, 울산문인협회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 애써주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기술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소설

예심을 통해 본심에 올라 온 15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고른 작품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몇 작품은 구성이 치밀하지 못해 산만한 점이 두드러졌다. 본심에 오른 작품들 가운데에 「꽃」, 「오징어와 참치」, 「그림자 고래」, 「입수」가 눈길을 끌었다.

「꽃」은 다른 작품에 비해 소박하지만 그 소박함을 큰 감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목동인 ‘꽃’의 일상과 외진 섬에 등대를 세우려는 할머니의 사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소설적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 시종일관 이야기를 담담하게 끌어나가는 문장은 자극적인 것이 새로움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작가적 고집으로 돋보였다. 또한 사물에 나름의 상징을 부여해 심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솜씨 역시 좋았다.

「오징어와 참치」는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화자의 사연과 그 아버지의 사연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울림을 주고 있다.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박진감 넘치는 묘사와 생생한 언어들은 현장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원양어선을 타고 불법참치잡이를 하다가 모리셔스 공화국에 수감되었다가 어디론가 사라진 아버지와,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화자의 형상이 겹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원초적인 공감으로 독자에게 다가온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문장력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자 고래」는 외딴섬의 등대지기로 살아가는 왕년의 고래잡이 포수였던 영감과 쿠앙이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우정과 삶의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서정을 밑자락에 깔고 잘 엮었다. 임금체불에 항의 하다가 회사 대표로 부터 린치를 당해 도망 나오는 외노자 쿠앙의 모습에는 세대까지도 곁들이는 기량이 돋보였다.

「입수」는 뉴기니 섬의 오래된 등대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신형등대를 건립하는 일을 하는 화자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흑등고래를 해체하는 현장을 보다가 잡혀간 화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난 바다에서 그를 살려준 것이 고래의 무리였다는 설정이 가슴 묵직한 감동으로 와 닿는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재구성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작가적 시선이 신선했다.

네 편의 작품이 완성도가 비슷비슷하고 또한 흥결까지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주제를 단순하고도 통일성 있는 사건으로 압축하는 단편소설의 미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꽃」을 대상작으로 뽑고 나머지는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심 없는 정진을 당부한다.

소설 심사위원 **김성달**

시 / 시조

본심에 넘어온 등대문학상 심사대상작품은 60 편이었다.

그 중에서 기(起)와 승(承)에서는 잘 나가다가 전(轉)에 가서 기우뚱하고 결(結)에 가서 마무리가 잘 안되거나, 전체와의 통일성이 없어서 선에서 제외된 작품이 많았다.

또는 상상력은 좋으나 구성과 통일성에서 감점을 받거나 주제에서 탈락되어 안타까웠다. 시를 쓰는 기본에 대한 공부부족한 탓인 듯하다.

최우수상을 받는 「소금꽃의 시간」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을, 바닥경전을 읽어가며 가슴 졸이는 염부의 삶으로 잘 묘사하여 형상화해내고 있다. 아버지의 삶을 소금꽃으로 치환해내는 솜씨가 뛰어났다. 염전의 물이 말라가며 소금꽃이 피어나듯이, 아버지를 “제 몸의 물 다 쏟아내고서야” 피어나는 한 송이 꽃으로 피워내어, 고단한 삶 속에서 눈물과 생의 의지를 읽어내는 화자의 시선이 웅숭깊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넙치의 잠」은, 한 생(生)동안 세월의 수업을 견뎌내고 죽음을 목전에 둔 잠녀(潛女)인 할머니와, 횃집 수저(水底)바닥에 납작 엎드린 넙치의 잠을 교직으로 짜 나가는 솜씨가 뛰어났다. 할머니의 바다생활 소재를 물고기로 연결시켜 잠녀의 일생을 묘사해내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수상 「들망어업-송어떼 버랑관측소」는, 산벼랑에서 망을 보는 들망어업 망잡이의 망보기와 기다림의 과정과 기대, 그 기대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벅찬 환호를 잘 그려내고 있다. 형상화되지 못한 관념의 노출과 다소 부족한 상상력 등을 잘 극복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운문)는 산문과 달라서 관념이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도록 형상화(形象化)하여 이미지(image)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토릭(rhetoric: 修辭法)이 필요하다. 시를 쓰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등대문학상”에 걸맞게 소재와 주제를 취하고서도 제대로 형상화가 안 되어 탈락된 안타까운 작품들은 다음 기회에 더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등대문학상’을 제정하여 등대와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무해주고 국민 정서 순화에 기여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시/시조 심사위원 **비례서**

수 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한 제5회 등대문학상 공모전 본심 중 수필 작품 대부분이 다양한 주제로 인상적이었다.

바다와 얽힌 삶의 편린들을 깊이 묘사하고 사색하여 써낸 작가들의 작품마다 깊은 고뇌가 엿보였다.

수필은 우선 작가의 남다른 체험이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남다른 체험 없이 글을 쓰면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독자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기면서, 보다 강화된 응집력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떻게 소재를 잘 묘사하고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 끝까지 독자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언어를 견제하고 문단 구성 및 단락을 잘 완성했을 때, 작품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수필 심사위원 노길순

수상작품

대 상	소설	윤재민	꽃
최우수상	시/시조	김형미	소금꽃의 시간
	수필	박금선(박금아)	태왁, 숨꽃
우 수 상	시/시조	김영옥	넙치의 잠
	시/시조	유종인(육명원)	들망어업
	시/시조	조주안	소라개의 집
	소설	김필주(백진)	오징어와 참치
	소설	조요섭	그림자고래
	소설	이유겸	입수(入水)
	수필	이성은	형의 그림자
	수필	박하성	노를 저으며
	수필	김임순	집어등이 밝은 이유

수상작

울릉도등대





제5회 등대문학상

대 상



윤재민

부산광역시

프로필

경상북도 구미 출생

부산대학교 사학과 졸업

2008~2009

광안리 엘리스2046 바리스타 근무

2010~2014

부산대 커피클라라 운영

2016~

단편, 장편 소설 집필중

당선소감

단편소설 ‘꽃’은 바다와 등대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등대가 필요한 이유, 사람들에게 등대가 필요한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매하든 우매하든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소문을 퍼트리는 것도, 멀쩡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곡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할머니의 말은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처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면서 글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제5회 등대문학상 대상 / 소설

윤재민



목동의 이름은 꽃이었다. 김꽃,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녔다면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이름, 하지만 목동은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열일곱 살이 되었다.

목동의 하루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이라고 부르기도 이른 여섯시에 잠을 깨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할머니는 일 년 삼백육십오일, 그 삼백육십오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십칠 년 동안 목동을 업고, 목동이 걷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손을 잡고, 그러다 할머니가 싫어져 멀찌감치 떨어져 걸을 때에도 오롯이 둘이서 언덕을 올랐다.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목동에게 주었고 눈이 오는 날에는 다 떨어졌다 해도 하나밖에 없던 털실 목도리를 목동의 목에 둘러주었다. 가기 싫다 때를 쓴 적도, 왜 가야하는지 이유라도 알고 가

자 목청을 높인 적도 많았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그래야 네가 살어.’

목동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기도로 되는 것이었다면 적어도 우리 둘만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도로 죽는 사람 목숨이 사는 것이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적게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바다는 목동이 자라는 십칠 년 동안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목동은 그 바다를 만져본 적이 없었다. 단지 언덕 위에서 바라보고, 바라보다 바람이 불면 향을 맡고,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는 배를 다시 바라보고, 오로지 그것이 목동이 바다를 향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언덕에서 내려와 늘 먹던 반찬과 밥을 먹고 나면 목동은 그제야 홀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소 한 마리, 염소 네 마리, 그리고 개 한 마리를 끌고 목동은 다시 언덕을 올랐다. 으레 잡종이라 부르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앞장을 섰고 다음이 염소들, 마지막으로 소를 끌며 목동이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러다 채비를 마치면 바다로 나아갔다. 그물을 정리하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사람들, 떠나고 남은 바닷가에서 다시 생선바구니와 남은 그물을 정리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다르게 목동만이 늘 바다와 반대방향인 언덕을 올랐다. 물을 만지며 사는 사람들, 생선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마을에서 물을 멀리한 사람은 할머니

와 목동 오직 둘뿐이었다.

“나도 비린 게 먹고 싶어요.”

그럴라치면 할머니는 그게 무어 좋다고, 하고 말았다. 남들 다 먹는 걸 왜 나는 못 먹나요, 할라치면 할머니는 또 우째 남 먹는 걸 다 먹고 사는가, 하고 말았다. 그러고는 말도 거두고 눈길도 거두고 그렇게 목동은 다시 언덕을 올랐다. 검은 개가 따르면 개를 데리고 그러다 눈치라도 있는 염소가 따를라치면 그 녀석도 데리고, 그래서 목동은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언덕 위에는 풀들이 무성하진 않았다. 봄이면 푸른 풀들 몇 무리, 여름이라도 햇빛 가릴 큰 나무 없이 몇 무리,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도 소와 염소들은 만족하며 살았다. 가을이 오면 빛부터 다른 갈색



억새들이 우거지고 그거라도 먹으려나 쳐다보면 목동의 마음을 아는지 염소들과 소는 억새를 뜯어먹고는 목동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뺄어내곤 하였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동은 제 마음 알아주는 동물들이 고맙기도 하였지만 제 눈치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겨울이 오면 언덕을 오르는 일은 소와 염소뿐 아니라 목동에게도 쉽지 않았다. 가는 걸음마다 눈 속으로 걸음이 사라지고 그러다 한 발도 떼어놓기 힘들 때는 도대체 이 일들을 왜 반복해야 하는지 혼자 신나서 날뛰는 검은 개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검은 개가 무슨 잘못이 있으랴, 목동은 다시금 미안한 눈빛으로 개를 달랬고 그럴 때면 검은 개는 다시 신이 나 펄쩍펄쩍 눈발을 뛰었다.

동물들에게 내려앉은 눈을 털어내고 제 몸을 감싼 눈을 털어낼 때에도 검은 개는 아직도 흥이 가시지 않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 놀자 보채고 있었다. 잠깐이라도 그러고 흰 개로 살아라, 웃어주고 돌아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의 털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나, 목동은 혼잣말을 하고 돌아섰지만 한편으로는 그 뭐 어려운 일이라고 반대하나, 꿈쩍 않는 마을 사람들이 밍기도 하였다.

“제발 면장님 좀 보입시다.”

할머니는 오늘도 면사무소 소파에 앉아 한 명밖에 없는 직원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직원도 하루하루가 여간 불편할 일이

아니었다.

“면장님을 뵈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걸.”

직원은 망부석처럼 앉은 할머니의 소매를 잡으며 일으키려 틈새를 보고 있었다.

“어데, 면장님만 허락해주면 내가 다 설득할 수 있구만.”

할머니의 손길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직원의 손길을 뿌리쳤다. 실패를 직감한 직원은 그 길로 자리로 돌아갔다. 영락없이 오늘도 할머니와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었다.

점심 무렵, 직원은 도시락 뚜껑을 열다 한참동안 소파에서 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직원이 이곳에 온지도 삼 년째, 전임자가 일러주기로 벌써 십삼 년이 넘었다했으니 올해로 할머니의 방문은 십칠 년이 되는 것이었다.

까무룩 잠든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온 직원은 조용히 할머니의 팔을 흔들어보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온 노인이 잠이 드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얼마 전부터 낮빛이 좋지 않은 노인이 금방 잠드는 것이 못내 불안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스르르 눈을 뜰 때는 다행스러운 마음 반 원망스러운 마음 반이 들어 직원은 멀뚱히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등대는 그렇게 쉽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싸준 밥을 잔뜩 물고는 직원이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누가 그걸 모르나, 흘깃 직원과 눈을 마주쳤던 할머니도 나무젓가락으

로 계란말이를 집어 물었다. 얼마 안 되는 반찬을 할머니와 나눠 먹는 것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마냥 굶고 있는 노인을 그냥 두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먹을세라 한 움큼씩 볼에 가득 넣고 서로를 쳐다볼 때는 순간 창피함이 몰려들어 눈을 피하며 웃기도 하였다.

배를 든든히 채운 노인이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고 영락없이 붙잡혀있던 면장이 자리를 피하고서야 직원은 자신의 일을 살필 수 있었다. 삼년 째 면장을 찾아오는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를 피해만 다니는 면장도 직원은 그 누구의 마음도 가까이 헤아릴 순 없었다.

날이 어둑해져서야 돌아온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마른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흙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술술 밥이 익는 냄새가 마당을 맴돌 때 검은 개와 염소들, 순한 소까지도 배가 고프지 제들의 울음을 울기 시작했다. 목동은 구겨진 신발을 끌고 마당으로 나와 동물들의 밥을 챙겼다. 마당 한 켠에 쌓여있던 여물더미에서 조금을 뽑아 소에게 주고 마른 풀들을 모아 염소들의 우리에 넣어주었다. 제도 배가 고프지 연신 목동을 따라 다니던 검은 개에게도 점심때 먹고 남은 밥을 말아주고 그 길로 돌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할머니도 제 할 일을 목동도 자신의 할 일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바다에는 얼씬도 하지 말어.”

밥상을 앞에 두고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말을 내놓았다. 하

루도 거르지 않는 말이었다. 그만 좀 해, 라고 받아치면 새겨들어, 라고 말을 했고 내가 간 걸 안 갔다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알 거야, 하면 마을 사람들 눈은 폼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제, 라고 했다. 좀 체 지기 싫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좋아하지도 않아, 라고 한마디 라도 더 할라치면 그제야 희멀건 눈을 치켜뜨고 목동을 노려보며 할머니는 핏대를 세워댔다.

“너도 죽고 싶으면 가. 너도 바다에 빠져 죽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고는 힘겨운 무릎을 짚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하루 종일 배가 고팠던 목동은 말로도 이기지 못하고 눈빛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왜 매일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우선은 고픈 배라도 채우자 우걱우걱 밥을 씹을 뿐이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목동이 방을 나설 때 할머니는 마당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기도라는 녀석을 또 올리고 있었다. 밥을 뜨지도 않고 나가버린 할머니가 신경이 쓰였던 목동은 장독대 옆을 지나며 들으라는 듯이 몇 번 헛기침을 해댔다. 하지만 지성이 부족할까 할머니는 헛기침에도 꿈쩍 않고 기도를 올렸다. 그런 할머니의 곁을 지나 집을 나설 때 눈치 빠른 검은 개가 목동을 따라 나섰다.

밭길이 닿는 곳은 영락없이 언덕이었다.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목동에게도 세월의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다. 한참을 올라 언덕 끝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땅인지 그리고 어디가 마을이고 어디가 언

덕인지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원망 섞인 눈빛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바다를 내려다볼 때에 좀 전까지 곁에 있던 검은 개의 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검은 개도 삼켜버릴 어둠이라 언덕 위에 있는 거겠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검은 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언덕을 내려선 목동은 어쩔 수 없이 바다로 향했다. 한 번씩 사라질 때면 바다로 뛰어가는 검은 개의 습성을 알기 때문이었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목동의 어깨를 감쌌다. 낯선 바다의 내음이 콧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콧속으로는 할머니의 절규가 울렸다. 너도 가서 죽어, 너도 가서 죽어버리라고, 할머니의 절규는 콧속에서 방황하는 바다 내음을 밀어내며 텅 빈 목동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

어둑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은 개를 찾아 헤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 등도 하나 없는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강 선장과 나 선장이었다. 바닷가에 하나뿐인 구멍가게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선을 알아보게 해주었다.

“아직도 김 선장 어매가 등대를 놓아 달라 한다면서?”

목동은 구멍가게 담벼락으로 몸을 숨겼다.

“그라면 뭐하노? 어데 박 면장이 그걸 허락하겠나? 즈그 형 저래 병신 되가 누워 있는 게 벌써 십칠 년째네.”

박 치수 이야기였다. 병신은 됐지만 마치 마을에 아직도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름, 박 치수. 목동은 듣기 싫은 얘기에 발길

을 돌리려 숨을 죽이고 돌아섰다.

“그래도 등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 밤만 되면 어두워가 선박끼리 부딪혀서 죽은 사람만 벌써 몇 명이고?”

“그걸 누가 모르나? 김 선장이 박 치수 배만 안 들이박았어도 등대는 진즉에 생겼을 거구만.”

“그래도 그건 너무한다. 아무리 면장이 높은 자리라도 그래 지 마 음대로 하는 게 어딴노? 놔줄 거는 놔주고 미워할 거는 미워하고 해야지.”

“마 댔다. 술이나 묵자. 어차피 박 면장은 김 선장 어매 말 안 들을 끼다. 그라고 우리도 박 면장 눈밖에 나뵈야 좋을 거 없다.”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동의 맨발에 따뜻한 햇바닥이 느껴졌다. 내려다본 발치에는 검은 개가 무어라도 아는 듯 숨소리를 죽인 채 목동의 발을 훑고 있었다.

목동은 방파제를 향해 걸었다. 검은 개가 말없이 목동을 따랐다. 김 선장이 박 치수의 배를 들이박았다. 십칠 년 전 유독 어둡던 날 밤, 김 선장의 배는 똑같이 물으로 향하던 박 치수의 배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을 틀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박고 말았다. 김 선장의 배는 침몰했고 심하게 부서진 박 치수의 배는 간신히 물으로 흘러왔다. 부서진 배와 쓰러진 박 치수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박 치수를 집으로 옮기고 그 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박 치수는 숨만 붙어있는 병신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통통 부어버린 김 선장의 시신이

쓸쓸히 물으로 다가왔다.

목동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미 사실은 굳어져 있었다. 김 선장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날 밤, 김 선장과 박 치수만이 알고 있을 그 사실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진실처럼 십칠 년째 믿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박 치수가 정신을 잃기 전 김 선장이 박았다고 한 마지막 그 한마디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마주한 바다는 적막했다.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어찌면 눈앞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카로운 물갈퀴를 세운다. 나무로 단단히 막은 배를 할퀴고 그래도 화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배 위에 선 어부의 뺨을 때린다. 뺨을 때리다 그래도 굳건히 배를 지키고 있는 어부를 만나면 바다는 끝을 모르고 사나워진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에게, 도망가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꼭 알려주려 한다. 하지만 바다도 모르는 것이 있다. 뺨을 때리고 배를 할퀴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 어부로 태어난 그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곶아?”

목동은 뒤를 돌아보았다.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검은 개가 달려간 곳에 여선생이 서 있었다. 멀뚱히 여선생을 쳐다보았지만 목동도 여선생도 서로를 보며 놀라진 않았다.



“할머니와는 내가 조금 더 얘기해볼게.”

나란히 방파제 바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숨죽인 바다와 목동 그리고 여선생까지, 보이는 것은 오직 캄캄거리는 하얀 눈동자 뿐이었다.

“목동도 나쁜진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아는지 검은 개가 목동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래도 검정고시라도 쳐보자. 응?”

품으로 파고든 검은 개를 안고 목동은 발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곳에 하얀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가 있었다.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킨 바다는 목동과 여선생의 대화를 방해하긴 싫은 듯 조용히 다가와 부서지고 부서진 뒤 사라져 다시 나타났다. 이름도 모르는 여선생의 머리에서 훔날려온 향기에 목동은 어렴풋이 엄마였던 사람의 흔적을 느꼈다. 통통 부어버린 몸으로 방파제로 흘러온 남편을 보고 쓰러진 여인, 정신을 잃고 방파제 위에서 아이를 낳은 쓸쓸한 여인, 차마 품으로 제 아이를 안아보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떠나버린 불쌍한 여인, 목동은 여선생의 향기를 지우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언덕에서 내려올 때 마을 어딘가에서 곡소리가 들려왔다. 바닷가가 아닌 마을에서 곡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다. 소리의 출발점을 찾아 목동이 두리번거릴

때 곁에 서 있던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비쳤다. 목동은 자신이 잘못 본 것 같아 다시 한 번 그녀의 눈가를 살폈다. 하지만 목동의 눈길을 느낀 그녀는 이내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김 선장의 시신이 물으로 다가온 그날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모진 말로 죽은 사람을 욕해도 눈 하나 까딱 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동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허겁지겁 목동의 집으로 달려온 강 선장은 할머니의 앞에 멈춰 서 거친 숨을 토해냈다. 영문을 알길 없는 목동은 멀뚱히 강 선장을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놀라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강 선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치수가, 박 치수가 죽었어요.”

할머니의 눈물은 박 치수의 죽음을 알은 눈물이었다. 십칠 년째 끈질기게 붙어있던 명줄이 끊어졌음을 직감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평상으로 걸어가 몸을 앓혔다. 잠시 낮을 놓고 있다가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은 가을의 높은 하늘과 이른 겨울이 올 듯한 회색빛 하늘이 반반 섞여있는 것 같은 하늘이었다. 차마 마른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가녀린 팔이 몸을 지탱하려 평상의 한편을 움켜잡았다. 혹시 쓰러지더라도 할까 강 선장이 달려와 어깨를 부축했지만 이내 그녀는 괜찮다며 강 선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 이후로도 한참동안 마을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동은 할머니를 남겨두고 다시 언덕을 올랐다. 이른 겨울이 오기 전에 소와 염소들에게 마른 억새라도 든든히 먹이고 싶었다. 마른 억새가 싫으면 마른 풀들이라도 먹으면 그만이었다. 재촉 없이 곁을 따르는 검은 개를 내려다보며 목동은 다시 할머니의 눈물을 떠올렸다. 왜 울어야 했는지 목동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목동이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낯선 여인의 빈 젖을 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억이 목동의 기억인지 할머니 애기들의 잔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동은 빈 젖을 빨던 자신을 내려다보던 여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입에 물리면 빠는 것이 당연했던 아이였기에 목동은 여인들의 거부감에도 있는 힘껏 젖을 빨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자신의 아이들을 먹이고 비어버린 빈 젖, 그것은 목동에게 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버린 느낌이었다.

기억의 잠에서 깨어난 목동은 몸을 일으켜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반쯤 가라앉아버린 태양과 태양의 빛을 반쯤 삼켜버린 바다가 서서히 하나가 되고 있었다. 언제부터 씹고 있었는지 아직도 풀을 씹고 있는 소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염소들 그리고 그들을 이리저리 쫓는 검은 개까지, 그렇게 목동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동물들을 끌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허기진 배를 어루만지며 집으로 들어서려할 때 어디선가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동은 들어서려던 걸음을 멈추고 한발 물러났

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것은 박 면장의 것이었다.

“형이, 형이 종석이형 배를 들이박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목동은 거칠어지려는 숨을 참았다. 할머니를 붙잡고 울던 박 면장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흘려댔다. 그러다 면장이 붙잡고 있던 그대로 할머니는 평상에 털썩하고 주저앉아버렸다.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면장은 주저앉아버린 할머니를 따라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 이후로도 한참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종석이가 그런 게 아니지? 우리 종석이가, 우리 종석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할머니는 몇 번이나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바닥에 고꾸라진 면장은 박 치수가 숨이 넘어가기 전 진실을 말했다고 말할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면장의 울음과 할머니의 탄식이 낡은 집 마당을 맴돌 때 목동은 집 앞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던 김 선장과 병신이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았던 박 치수, 이제 그들은 모두 오롯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 명예롭든 명예롭지 않든 그들은 이제 편히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박 면장이 돌아가고도 한참동안 할머니는 평상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가 울고 시간을 잊은 귀뚜라미마저 잠이 들어도 그대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대충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던 목

동은 잠결에 어렴풋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살짝 문을 열고 쳐다본 마당에는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있는 정성을 다해 손을 비비고 그 정성도 모자라 연신 고개를 숙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아래에서 가장 슬픈 몸짓 같았다. 쓸쓸한 모습에 고개를 돌리고 다시 몸을 누였을 때 살짝 닫힌 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목동은 재빨리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려 누웠다.

잠시 뒤 문을 열고 들어온 할머니의 손길이 모로 누운 목동의 어깨에 닿았다. 어깨를 두세 번 쓰다듬다가 용기 내어 목동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그러다 한참을 목동의 얼굴을 보며 녀을 놓고 있었다.

“네 이름이 왜 꽃인지 모르지?”

나지막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든 척 목동은 눈을 더욱 깊게 감았다.

“바다와 닿아 있지만 바다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은 거여. 맞닿은 건 침범할 수 없으니까.”

들키지 않으려 목동은 가는 숨을 토해내었다.

“이제 면장이 허락하면 등대가 설 거여. 그러면 서로를 발견 못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여.”

할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목동의 얼굴로 떨어졌다. 목동은 메어오는 목을 참기 위해 마른 침을 삼켰다.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손으로 닦은 할머니의 손길이 다시 목동의 뺨을 어루만질 때

목동은 처음으로 할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거칠고 딱딱한 손길에서 체온과는 다른 뜨거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목동은 깨지 않았다. 깨어나 할머니를 마주한다면 울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울어버린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진 목숨이 참 오래도 견뎠다. 십칠 년 동안 이어오던 기도가 오늘 아침 멈추었다. 그녀의 가녀린 다리는 부엌을 지탱하던 나무기둥에서 속절없이 훔날렸고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목동은 그녀의 앙상한 다리만 붙잡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상여꾼들의 상엿소리가 마을 어귀를 돌아 바다로 향하는 그 때에도 마을 사람들의 숙덕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김 선장이 박은 것이 아니고 박 치수가 박은 것이었대, 할머니는 편히 길을 떠날 것이다. 부질없는 인간의 얘기들, 차마 제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우매함, 고매하진 않더라도 인간같이 살다간 그녀는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틀 동안 두 번의 출상을 치른 마을은 다음날 더욱 고요했다. 상여꾼의 목도 설법한 일이었다. 기도를 할 이유가 없었던 목동은 눈저막이 빈 집을 나섰다. 아침을 거르긴 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다. 그렇다고 동물들까지 굶길 순 없었다. 며칠 동안 소란스러움을 견뎠던 동물들은 무엇이랄도 아는 듯 탈 없이 언덕을 올랐다. 보채지도 달리지도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은 채 무던히도 언덕을 올랐다.

높은 오르막을 오르며 할머니와 함께 오르던 날들을 떠올렸다.

봄은 봄이라 싫었고 여름은 여름이라 싫었다. 가을은 괜한 짓 한다 싫었고 겨울은 발이 시려 싫었다. 좋은 날이 하루 없었으며 기쁜 날 또한 하루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꼬박 일 년을, 그렇게 꼬박 십칠 년을 손주를 데리고 다녔다. 귀한 아들 병신 만들어놓고 제 아들 잡아먹었다 꼭 들릴 만큼 축덕이던 사람들 곁에서도 눈 하나 꿈쩍 않던 사람이었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래야 너라도 바다에 뺏기지 않는다고 벌건 눈을 치켜뜨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모질던 사람이 바람에 흩날려 버들잎처럼 날아갈지는 몰랐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덕에 올랐을 때 멀리 박 면장과 일행들이 보였다. 이른 겨울이 오려 아침부터 바람이 매서웠다. 면장과 일행들은 언덕 끝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목동을 발견한 박 면장이 목동을 향해 다가올 때는 어쩐지 불편한 마음에 목동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내년에는 등대가 들어설 거야.”

목동은 굳이 박 면장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그의 말을 거부하듯 눈을 치켜뜨지도 않은 채 그냥 그의 손에 잡힌 대로 어깨를 내어주고 바람을 맞고 있었다. 수궁도 거부도 이제 목동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와 할머니 일은, 정말 미안하다.”

차라리 듣지 않으면 좋을 이야기였다. 들어서 득이 될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없는데 듣지 않아도 되는 목동이 그 말을 듣고 말았다. 죽이지 않고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

람과 우매한 마을 사람들을 밝혀줄 등대를 위해 평생을 허비하다 간 여인은 이제 이 자리에 없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고개를 숙인 목동을 몇 번 더 어루만지던 박 면장의 손길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목동은 언덕의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걸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걸어가 멈춰선 그곳은 꽃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넓은 언덕이 모두 꽃이었지만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곳은 지금 목동이 서 있는 언덕의 끝자리였다. 닿아 있지만 침범할 수 없는 곳, 꽃은 바다와는 가장 가깝지만 먼 곳이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순하던 검은 개가 제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언덕을 날뛸 때 개를 따라 염소들도 춤추기 시작했다. 이미 시들해진 마른 풀들을 뜯던 소만이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멀뚱멀뚱 검은 개와 염소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목동은 기억을 떠올렸다. 오래 전 목동이 할머니의 품을 싫어하지 않던 마지막 무렵, 목동을 품에 안았던 할머니는 멀리 바다를 내려다 보며 얘기했었다.

“등대는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여. 단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

목동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마을에 등대가 필요한 이유, 사람들에게 등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목동이 우는데도 검은 개는 신이 나 달렸다. 신이 나 달리는 개를 염소들이 쫓고 다시

그런 염소들을 개가 쫓을 때 목동과 소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적어도 목동은 혼자가 아니었다. 언덕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외롭지 않았다.

봄이 오고 언덕에 등대 공사가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필요했던 등대가 생긴다며 기뻐하기 시작했다. 기뻐하던 그 사람들은 할머니가 매일 면사무소를 찾을 때 외면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등대는 필요 없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우매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대라도 있다면 부끄러움이라도 밝힐지 모른다. 창피함이라도 들어낼지 모른다. 비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늘 그렇게 숨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늦은 가을 무렵 등대가 완성되고 그 이후로 물으로 돌아오는 배들이 부딪히는 일은 사라졌다. 같은 시간 물으로 향하던 배들도 서로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조금씩 길을 양보하는 일도 생겼다.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다.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보상 같은 것이었다.

목동은 이제 밤에도 언덕을 올랐다. 아무리 검은 개가 바다를 향해 달려도 이제는 놓치지 않았다. 달려가는 검은 개의 등빛이 등대에 비춰 때로는 흰 개처럼 보이고 바다에 다다른 흰 개가 바다에 감춰져 다시 검은 개로 바뀌어도 목동은 언제든 자신의 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바다에 도착해 방파제 바닥에 앉을 때면 엄마였던 사람의 향기가 다가왔다.

“검정고시라도 쳐보자. 응?”

여선생은 늘 그 말 뿐이었다. 목동은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내려다본 발치에는 잊고 있던 바다가 있었다.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방파제에 부딪혔다 사라지는 파도, 그곳에는 늘 바다가 있었다.

목동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그러다 대답하지 않는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이 느껴질 때면 돌아서 짧게 대답했다.

“목동도 나쁘지 않아요.”

목동은 다시 돌아서 걸었다. 검은 개가 목동을 따랐다. 목동의 뒤에 바다가 있는 것, 언덕 위에 등대가 있는 것, 목동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제5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김 형 미
광주광역시

프로필

전남 장성 출생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신사임당 백일장 장원
백고 문학상 대상
여수해양문학상 우수상,
기독교보 신춘 가작
국민일보 신춘 우수상

당선소감

등대, 하고 나지막이 불러보면
달을 수 없는 곳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어두운 곳에서 나를 돌아서게 했던 이름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대가 되어주었던 삶을 더 기억하고 싶어서,
등대를 보며 폭풍의 바다를 건디고 있을 이들을 위해서,
써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들이 잊히지 않아서 밤새 밤을 앓는
눈빛, 등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며
등대 같은 삶을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등대 같은 존재를 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담고 있기에
등대문학상은 그 빛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감성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상을 제정해주신 등대문학상 관계자님들과
부족한 제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길에 빛이 되어 더딘 걸음을 도와주신 귀한 이름들,
잊지 않겠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며느리, 아내, 엄마를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는 가족들,
제가 향방을 잃을 때마다 빛으로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하
나님,
감사합니다.

소금꽃의 시간

제5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시,시조

김 형 미



계절을 앓는 꽃들은 소금기 가득한 시간을 머금고 있다

빈 가슴에 가두고 졸여야 했던 것들

떨물을 따라잡지 못해 조바심치던 날들이 지나갔다

뒤척일 때마다 찰랑이는 들물에 하루하루는 젊음처럼 위태로웠다

흐린 날이 많아서였을까 몇 방울 흘뿌리는 소나기에도 녹아내리
던 아버지의 허술한 결정지엔 며칠째 아무런 낌새가 없다

마른 시간의 뼈마디에서만 하얗게 만개하는, 꽃

여름 동안, 쇠잔한 어깨로 읽어가던 바닥경전을 지니고 있었으니
발끝을 세우던 염부의 기도는 경계를 지우는 흰빛의 아득함이 아니
었다

더는 어떤 물기도 흘러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검붉은 얼굴에 하얀
기다림이 서린다



제 몸의 물을 다 쏟아내고서야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빛의 눈물 같은 순백의 결정체 앞에

나의 각오는 결정되었다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듯 설산이 일어서고 있다





제5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박 금 선(박금아)

서울특별시

프로필

경남 삼천포 출생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삼성그룹 사보기자

2015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

2014 제8회 해양문학상 장려상

2016 제10회 해양문학상 장려상

당선소감

어린 날, 집을 나설 때면 어머니는 늘 이르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처음 길을 떠났던 자리로 되돌아가라고요. 살아오는 동안 자주 바다를 찾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내게 바다는 나의 본향이었으니까요.

우연한 기회에 두 달여를 제주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올레 길을 걸었습니다. 고내포구를 지날 때였지요. 거센 파도가 잘 버린 칼날처럼 시퍼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은 그런 날에도 살을 베며 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테왁 하나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고르다가, 다시 파도 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해녀들이 사라져간 자리에서 테왁이 꽃처럼 피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해녀들이 테왁을 닦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의 숨비소리를 다 품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해녀들도 바다 위로 올라 어둠을 비추는 달이 될 수 있을까요? 땅에서는 작은 몸뚱이 하나 비빌 곳 없어 파도에 지문을 새겨 하늘에까지 길을 내는 해녀의 이야기를, 그 환한 숨꽃의 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희미한 나의 글 길에 등대를 세워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작은 불빛의 자리에 고무방석을 내어주며 치난한 삶을 몸으로 들려주신 고내 앞바다의 해녀 할머니 부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테왁, 숨꽃

제5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수필
박 금 선(박금아)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외지인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파도의 울부짖음이랄까. 바닷새의 울음까지 겹쳐 2월의 고내포구는 난장이었다. 그 속을 뚫고 꿇길 듯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절절함이 걱정을 한숨으로 내뿜어버리는 호요바람 소리는 아니었다. 죽을 고비 끝에 간신히 안착한 철새의 마지막 울음 같기도 하고, 유년의 늦가을 밤 푸른 어둠을 가르며 마당 한 구석에 떨어지던 비파음 같기도 했다.

숨비소리라고 했다. 파도소리 높고 크다 해도 속을 비워내는 도저한 소리에는 부서져버렸다. 자신의 것을 다 비워야 날 수 있다는 갈매기가 해녀의 머리 위에서 울음을 더해주었다. 속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세상에서 속을 비워야 한다니 가능이나 한 일일까. 사람

속이란 얼마나 깊기에 그토록 많은 숨비소리를 담고 있는 걸까. 열마를 뱉어내야 다 비워지는 것일까.

제주 올레길을 걷던 중이었다. 바다 군데군데에 테왁*들이 떠 있었다. 너울을 타고 솟았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파도 속에 피어난 흰 꽃송이 같았다. 꽃잎을 열듯 숨비소리가 이어졌다.

방과제 끝에 섰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등대를 등받이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내를 기다린다고 바다를 가리켰다. 두 시 방향에 테왁 하나가 떠 있었다. 바닷물이 출렁이더니 해녀가 올라왔다. 그녀의 가슴 아래로 테왁이 사라지고 숨비소리가 났다. 할아버지는 살짝 손을 들었던가. 두 시간이 지났다는 말에 늘 아내를 기다리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머뭇하더니 대답 대신 깔고 앉았던 고무방석을 내밀었다. 한 시간이나 되었지 싶다. 할아버지의 입으로 지나온 삶들이 드문드문 내비쳤다.

긴 숨비소리 끝에 해녀 할머니가 바다에서 걸어 나왔다.

“양, 하영 했수파?”

망태기를 받아들며 많이 잡았냐고 묻는 말에 할머니는 아무런 표정이 없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를‘속을 바당에 다 물어버린 사람’이라고 했다. 그뿐, 노부부는 걷는 내내 한마디 말이 없다.

바다를 빠져나온 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 듯 했다. 여린 햇살이 달려와 젖은 몸을 어루만졌다. 구부러진 허리가 조금 펴지는가 싶더니 테왁 끝에 매달린 망사리 속 어물들이 진저리를 쳤다. 돌 문

어는 제 속으로 여덟 개의 다리를 동그랗게 말아 넣었고, 대합조개는 입을 앙다무느라 껍데기를 딱딱 부딪는 소리를 냈다. 게들은 운명을 연대하듯 집게 다리를 물고 스크럼을 찼다. 전복과 소라들이 망사리 사이로 빠져 살을 내놓고 있었다. 삶의 자리를 떠나온 것들의 슬픔과 안간힘이 느껴졌다.

‘해녀의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를 따라 걸으며 나는 기회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잡은 해물로 맛있는 저녁을 지어먹고 싶었다. 나는 조금 싼 값으로 살 수 있고, 할머니는 ‘해녀의 집’에 넘기는 것보다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흥정을 붙여보려던 참이었다. ‘할머니!’하고 부르려던 순간에 생각을 고쳤다. 할머니의 앙상한 발목뼈를 타고 흘러내리는 가녀린 물줄기 때문이었다.



골수(骨髓)를 다한 힘이 골수(骨水)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고단한 생애를 다 받아낸 고무옷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걸까. 뻘 속 시간들이 아스팔트 위에 푹푹 찍히고 있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남기고 온 모양이어서 길에서는 단지 몇 방울의 물방울로만 남을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우뚝 서고 말았다. 야속한 햇볕이 지우개가 되어 할머니를 지우며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난고난의 생애는 한 나절 햇살의 시간보다 짧게 기억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삶이 어찌 그리 쉽게 지워질까.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뿐, 굵은 힘줄로 이룬 생애는 바닷속이나 땅 위에서 봉인된 흔적으로 남을 게다. 열세 살 때 어머니가 안겨 준 테왁을 안고 물질을 시작한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땅의 끝에서 맞섰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어졌다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또 이어지는 길의 속성이 되었을 것이다. 언제 시원스레 뽕 뚫렸을까. 구불구불한 바닷길은 한 번도 쪽 뻗어본 적 없는 할머니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닳은 슬리퍼 뒤축에 시선이 머물렀다. 220밀리, 9문쭙 되려나? 그 작은 발이 디디고 설 한 자리를 위해 할머니는 내딛자마자 바스러져 내리는 세상의 끝자리들을 수없이 딛고 일어섰을 것이다.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운명을 거스른 채 숨을 끊고서야 오를 수 있었던 물의 자리는 송곳 끝 만큼이었을 터. 온 생애를 날고서야 겨우 앓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겨울나무 끝까지의 새처럼, 수많은 강물을 흘려보내고서야 간신히 발끝 한 자락 세울 수 있었던 한 조각 얼음 위의 겨울 물새처럼.

어물들의 가격이 잡히지 않았다. 망사리 속 해물들이 할머니의 목숨 같았다. 숨길을 끊어가며 잡아 올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 할머니의 해산물을 싸게 사먹으려고 했던 일이 부끄러워졌다. 그냥 준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구멍 송송한 망사리였을까. 할머니가 칠십 평생의 숨으로 지은 집은 당신의 노고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 망사리 속 해물들처럼 자식들은 그 속에서 오래 버티주지를 못했다. 육지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바다의 인자가 새겨졌던 걸까. 때가 되면 돌아오는 ‘조금 물때’처럼, 물으로 나갔다가는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할머니는 더 깊이 자맥질해 들어갔다. 어느 해, 재산을 털어 마련해 준 갈치 잡이 배는 몇 해 못 가 아들 내외와 함께 겨울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날 후 어린 손주들은 가슴팍에서 내려놓지 못한 테왁이 되었다.

할머니의 굽은 등에 진 테왁이 바닷가 벼랑에 뜬 달처럼 보인다. 온 생애를 저장하고 있다는 등뼈. 평생을 물질로 살아온 해녀 할머니의 등보다 더 가파른 벼랑이 있을까. 물과 바다를 번갈아 디디는 순간에서조차도 집과 망사리 어느 한 쪽을 내려놓지 못한 등이었다. 무거운 짐 진 채 뜨거운 사막의 한가운데를 물 한 방울 없이 건너야 하는 낙타의 운명에 비할까. 산 것들이 머무는 집의 무게가 오죽이나 무거운가 말이다.

고내에서는 밤이면 테왁이 절벽을 딛고 오른다고 했다. 땅 끝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테왁에 생애를 넣어 지고서 빗창 하나만을 든

채 하루에도 수십 번 천길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고내바다 해녀처럼, 테왁은 달이 되기 위해 매일 밤 직선으로 투신을 감행하는 게다. 숨비소리를 가득 안은 그 힘으로 벼랑을 오르내리다보면 기어이 어둠을 비추는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점점 멀어져갔다.

어느새 어스름이 깔리고 사방에서 찰방찰방 바닷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너털경을 지날 때였다. 눈 깜짝할 새에 할머니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둥근 달이 낭떠러지를 오르고 있었다. 그 벼랑 끝에서 할머니의 테왁 속 시간들이 환한 숨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 테왁 : 해녀가 물질을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이 뜨게 하는 공 모양의 기구.



독도등대



시
·
시
조



넙치의 잠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김영옥



쓰러져 누운 할머니의 뒤통수가 납작하다

눈꺼풀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얀 시트 위에서 거품만 빼금거리는 윤달,

잠녀(潛女)의 치어들이 꿈틀거리는 눈동자 위에

갯바위 따개비 소라처럼 들러붙은 저승꽃이 붉게

피어나는 깊은 바다의 넙적 물고기

세월의 수압을 등줄기에 새겨 넣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반쪽 몸뚱이, 외눈박이의

퇴화된 한 쪽 눈처럼 백태 낀 봄날,

추자 횃집 앞바다가 뿌연 물방울로

몸서리치고 있다

산소통에 매달린 목숨이
고생대 갑주어(甲冑魚)처럼
검푸른 우주의 단단한 리듬으로
어둠을 받아들이고 있다

횃집 수저(水底) 바닥에 납작 엎드려
깨어나지 않을 긴 잠에 든 오래된 잠녀,

꿈의 부력조차 부레를 잃고
가장 깊숙한 생사의 펄로 빠져드는지,
이따금 성한 지느러미를 파닥이며
수억 년 전 추억으로 가라앉고 있다

말해 봐요, 할머니,
그렇게 등짝 떼지 않는 건
바다에 빠뜨린 젊은 씨알을 줍기 위해선가요,
물의 나날이 이 꼴 저 꼴 눈꼴 시려
눈 감아버린 건가요. 말해 봐요, 할머니

머잖아 너울거리는 레이더를 꺼버리고
물고기자리로 돌아갈 잠녀(潛女), 물속에 잠들어 있다

할머니 뒤통수가 넘치처럼 납작하다



들망어업

— 송어떼 벼랑 관측소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유종인(육명원)



개복송아꽃들이 산벼랑에서 파도소리를 듣는다
벼랑 아래 들린 복송아 가지 하나는
아찔하지도 않은가 벼룻길 파도소리를
진분홍 꽃잠의 허공 베개로 삼고있다

한낮 졸음에 걸린 눈까풀 사이로
송어떼가 오수(午睡)와 각성 사이로 빠져나갈까
눈을 부비는 망보기는 막다른 벼랑의 척후병(斥候兵),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송어떼들이란
한 마리가 곧 수 백 마리의 군중심리로 선회한다
집에 두고온 치매 노모의 배변 걱정도
전방에 군(軍) 배치된 아들 생각도
개복송아나무 뿌리너겍에 잠시 묶어둔 채
망잡이의 눈초리는 삼엄한 전시를 방불하는 적막 속이다

고요하고 소슬한 파란의 기척이 오기까지
바다 길목에 쳐둔 그물은 물비를 하나 뜨지 못하는 기다림,
오지 않는 것은 언젠가 오고야 말 것이라는
천혜의 요새에 납작 엎드린 망잡이의 등짝 위로
복숭아 꽃잎이 무등을 태워줘요 사뿐사뿐 내려앉는다
숭어 속살에 복숭아 과육(果肉)처럼 차오를 단맛은
쓴 침이 고이는 감시의 주리를 틀고 틀어야 오는가

한순간 푸른 물빛이 검푸른 빛으로 생색을 낼 때
짜릿한 전율이 몸을 훑는다 망잡이의 무전기가 말문이 트이고
수백의 숭어떼를 하늘로 행가래치듯 잡아올릴 때
검푸른 물빛은 은빛의 파닥거리는 꽃숭어리들로
잠시 승천의 환호성을 들망 그물 위에 피워올린다
길목에 걸린 숭어떼들의 눈부신 개화(開花),
저 숭어 꽃들의 비린 향기는 어부의 가슴에 벽차오른다



소라게의 집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조 주 안



갯벌은 얼핏 낙원과 가깝지만 파도가 깎지 못한 뼈들로 꾸며진 고원입니다 지도에 새겨지지 못한 방들로 가득한 하룻밤의 도시입니다 나는 껍데기들에게 세 들어 장례를 치러주는 오래된 악사입니다 나는 파도소리에 숨겨진 맑은 음악을 찾아 늘 깜빡이를 켜듯 귀를 열고 터울 좋은 집들을 응시하죠

껍데기 속엔 뱃고동 소리처럼 비어있는 깊이만큼 감상적인 여정이 담겨있죠 나는 그 여정들을 읽으며 감정을 가다듬고 미지의 세계를 상상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니기를 좋아하듯 나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때마다 늘 시선은 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파도 속에서 떠밀려오는 것들과 떠밀려가는 것들을 능숙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합니다

집을 떠나보내는 일은 늘 여운이 남습니다 나는 새로운 집을 얻을 때마다 지붕 없는 해변의 방들을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선 집이 필요 하지만 방은 언제든지 만들고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숨구멍이 있다는 건, 그곳에 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들의 내력이 쌓일 때마다 내 몸에도 울림통처럼 이름 모를 방 하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바다에 비친 텅 빈 달이 울음을 뱉으며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
설



오징어와 참치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김 필 주(백진)



오징어성어기에는 더 불법어선이 극성을 부렸다. 중국어선이 서해영해 12마일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해양경찰청에서도 어업질서차원에서 작심하고 그곳으로 특별단속반을 보냈다. 나는 특수기동대 대원으로, 2004함에 올랐다. 두 대 함정과 고속단정 여덟 대, 헬기 두 대에 대원 팔십 명이 총출동했다. 함정은 속력을 힘껏 냈다. 함정에서 울리는 사이렌소리는 바다를 집어삼킬 듯 요란했다.

태양이 온전히 바다에 비춰졌음에도 회색빛 구름이 짙게 하늘에 드리우거나 구름에 가린 달이 으스스한 달빛을 검푸른 바다 위에 흘뿌린 듯했다. 아니면 태양이 바다 깊숙이 매몰된 느낌이 들었다. 사실 그날, 태양은 구름을 비집고 나와, 강한 햇살에 눈시울을 따갑게

하는가 하면, 어느새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다.

특별단속이라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물보라가 일어나는 뱃머리에서 나는 한 바다소년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날의 날씨 탓인지도 몰랐다. 바다소년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듯도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듯도 수평선에 걸려있는 듯했다. 바다소년은 무자맥질을 하는가싶더니 성큼성큼 나에게로 다가와 나의 뇌리 속으로 들어와 따리를 틀었다.

바다소년은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다가 울고 있다고 했다. 바다소년의 아버지를 삼킨 바다는 늘 제 몸을 바위에 부딪쳐 토악질을 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를 내뱉지는 않았다. 바다소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래 뱃속에 잠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래를 잡는 꿈을 꿔다고 했다. 바다소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소년이 되자, 아버지는 나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때대로 상상했다. 어쩌면 아직도 바다소년은 고래를 잡는 꿈을 꿀 지도 모르겠다.

중국어선 5척은 인근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다. 촘촘한 그물은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걷어 올렸다. 그물을 갑판위로 끌어올리던 중국 선원들은 사이렌소리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점점 함정이 가까이 가자, 그제야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뱃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내달았다.

카모프 헬기가 공중에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향해 접근했다. 점점 그 어선 쪽으로 낙하하며 강풍을 일으켰다. 수면에 이는 거친 물결은 더 넓게 확산되었고 중국 어선들은 좌우로 휘청거렸다. 대대장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는 함정에서 고속단정으로 갈아탔다. 한 대에 열 명의 대원이 조를 이루었다. 곧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을 에워쌌다. 포위된 다섯 척의 중국어선은 마치 다섯 손가락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작전 방어에 돌입했다. 순식간에 갑판위에 철갑을 둘러 방패를 만들었다. 방패는 단순한 철판이 아니었다. 뾰족한 못과 같은 쇠가 박혀 있었다. 중국선원들은 방금 전 고기를 낚아 올린 손에 무기를 들었다. 방패 사이로 그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화살쇠창이 꽂힌 긴 장대, 도끼, 낫, 쇠망치, 해머와 같은 무기였다.

그들은 압송에 응할 의지가 없었고 대항할 의지도 없어보였다. 우리 측도 그들을 향해 위협만 줄 뿐 어떤 무기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에 우선했다. 나포하라는 명령은 그것을 의미했다. 대대장은 한동안 기다림을 가졌다. 강압적인 방법보다 순순하게 해결점을 찾자는 의도였다. 대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서로의 동태를 살피는 시간이 오히려 극한상황이었다. 고요 속에 긴장감은 더 팽배했다.

이윽고 대대장이 행동개시, 명령을 내렸다. 나포에 응하지 않는 불법어선들에게는 방법이 하나뿐이었다. 카모프 헬기에서 평, 소리

와 함께 연막탄이 중국어선 아래로 투하되었다. 연막탄은 살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의 시야를 무너뜨려, 그 틈에 적을 제압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불그레한 연기가 난무해, 하늘빛은 일순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매캐한 냄새가 바다비린내를 압도했다.

선내진입, 명령이 내려졌다. 고속정에 탄 대원들은 중국어선 뱃머리에 바짝 다가갔다. 헬기의 하강풍에 중국어선의 철갑방패가 맥없이 스러졌다. 갑판 위에 선원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선원들은 선실 아래로 숨어들거나 갑판 위에서 사방을 분간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한두 척은 순순히 손을 들어 압송에 응할 의지를 보여, 뱃머리를 우리 측으로 돌렸다. 간혹 불법어업을 하는 선원들은 해양경찰대와 힘겨루기를 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차라리 별금으로 끝날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세 척은 연막탄이 그들의 눈과 코를 마비시켰음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선내로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선원들은 배 난간을 타고 오르려는 우리 대원을 향해 화살쇠창으로 찌를 태세를 했고, 낫과 쇠파치와 해머를 휘둘러 위협했다. 그 무기들은 너무나 원시적이고 그들의 행동 또한 원초적인 것이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시간대가 어느 시대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카모프 헬기와 함정과 고속정 같은 최첨단의 것들이 일순간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무기는 푸른 파도에 반사되어 서슬처럼 빛났고, 쇠는 더 단단해보였다. 또한 그들의 눈빛은 그것들을 닮아있었다.

별 경계심 없이 보았던 그들의 무기들이 마치 핵폭탄처럼 여겨졌

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들 중에 한 남자를 보고서였다. 그 남자는 다른 중국선원들의 무기와는 확연히 다른 강력한 것을 손에 들고 있었다. 축구공만한 둥근 철퇴였는데, 사방으로 뿔뚝한 날이 고슴도치가시처럼 돋아 있었다. 살짝 손에 스쳐도 깊은 상처가 날 것이 분명했다. 철퇴는 쇠사슬로 이어져 남자의 손에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는 하늘 위로 철퇴를 높이 올리고, 원을 그리며 돌리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남자가 휘두르는 철퇴를 피해 몸을 사렸다. 철퇴에 한방 맞으면 상처는 물론이고 고꾸라지거나 곧 바다로 떨어질 판이었다. 나는 둥근 철퇴 안에 핵폭탄이 들어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까지 앞섰다. 그보다 그 남자의 얼굴윤곽이 언뜻 나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의 마음에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없었다.

늙수그레한 그가 왜 나에게서 바다소년의 기억을 다시금 되살렸는지 그것은 지금도 알 수 없다. 그 와중에 내가 남자의 첫인상을 느낀 것 또한 그랬다. 내가 다시 남자의 얼굴을 살피려할 때, 남자는 돌아서서 반대편을 향해 철퇴를 휘둘렀다.

또 다른 중국선원 한 명이 쇠꼬챙이를 고속단정을 향해 날렵하게 던졌다. 그것은 마치 날개가 큰 바닷새 같았다. 수면에 고기를 낚아채는 부리처럼 내가 탄 고속정으로 날썰고 정확하게 날아들었다. 내 옆에 선 동료대원, 이민식의 가슴에 그것이 박힌 것은 순식간이었다. 피할 사이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동료들은 일단 고속정을 중국

어선 쪽에서 후퇴시켰다.

우리 측의 기세가 주춤하자, 중국선원들은 그것을 시작으로 불을 지피듯 무기를 들은 손에 힘을 가했다. 압송에 응하려고 함정으로 다가가던 중국어선도 일순간 돌변했다. 뱃머리를 틀어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얀 포말은 내가 그동안 보았던 어느 것보다도 강렬했다. 마치 성난 독수리날개처럼 퍼덕거렸고, 고래의 거친 물거품처럼 솟아올랐다.

화살쇠창이 박힌 이민식의 가슴에서 피가 솟아올랐다. 직각으로 박힌 쇠창살을 뺄 수도 없었다. 장대만 한 길이는 나의 키를 훌쩍 넘었다. 이런 무기는 역사드라마에 나오는 군졸들의 소품이거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서나 본 것들이었다. 내가 탄 고속정은 빠르게 2004함으로 향했다. 또 다른 고속정에 탄 동료들도 부상을 당해서 함대로 되돌아왔다. 구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민식은 그 경황 중에도 스마트폰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동영상 보여 달라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동영상 열어주었다. 이민식은 이년 전 결혼을 했고, 두 번의 유산 끝에 아내가 어렵사리 임신했다. 그는 한가한 시간이면 그 동영상을 보여주며 태아의 모습을 자랑하곤 했었다.

7개월의 태아는 온전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양수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함께 심장박동소리가 쿵쿵, 거칠게 뛰었다. 양수는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태아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의 원음, 바

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동영상 속에 태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간절함에 나는 말을 잊었다. 솟구치는 그의 가슴에 피만큼이나 그의 눈동자는 빨강계 충혈 되어 핏물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곧, 이민식을 함대로 이송시키고 나와 대원들은 고속정에 다시 올라 중국어선을 향했다. 김이 흘린 핏물은 대원들을 흥분시켰고, 혈전으로 동기를 부여했다. 모두 종전보다 더 의지를 나타냈다. 대대장은 가스총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도 준비해 두었던 가스총을 허리춤에 장착했다.

두 대의 고속정에 탄 대원들이 한 척의 중국어선 선내에 진입했다. 또 다시 카모프 헬기에서 하강풍이 내려쬘아졌고 연막탄이 뿌려졌다. 중국선원들은 그들의 무기에 한껏 기대어 대원들에게 대항했다. 그들은 오징어를 잡기보다 이런 전쟁과도 같은 싸움을 위해 바다에 나온 이들처럼 보였다. 나는 낯으로 손을 짚어대거나 도끼로 등을 내려치는 선원들의 날렵함에 몸을 간신히 피했다. 동료들은 가스총을 꺼내 그들의 얼굴에 쏘아 쓰러트렸다.

내가 가스총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철퇴를 휘두르던 남자가 나의 앞에 맞섰다. 그는 쿵푸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리 위와 어깨 양옆으로 그것을 돌리며 점점 나의 몸으로 바짝 다가왔다.

나는 눈앞을 빠르게 휘몰아치며 번뜩거리는 철퇴를 바라보지 못



했다. 연막탄이 안개처럼 뿌옇게 시선을 흐트리고 있어,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 그때 바닷바람이 불어, 그의 얼굴을 잠시 잠깐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면 그의 얼굴 주위로 잠시 연기가 사라졌을 때였을 것이다.

그의 목 언저리와 쇄골에서부터 오른쪽 얼굴로 타고 올라가, 눈 아래까지 이어진 칼자국에 나의 시선이 멈추었다. 칼자국은 붉은 사선으로 이어져, 긴 지렁이가 굼실거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 또한 오른쪽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었다.

나의 머뭇거림에 그는 계속 철퇴를 돌렸고, 나의 머리카락 몇 올이 철퇴 끝에 뿔혀져나갔다. 머리끝이 쭈뼛 섰다. 그럼에도 나는 가스충을 그에게 겨냥하지 못했다. 가스충을 꺼내든 나의 손은 머뭇거리며 경련했다. 나는 그 생면부지 한 중국선원에게서 더구나 생사의 귀로에 선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없게도 바다소년의 기억을 끌어당겼다.

*

남자의 얼굴에 난 칼자국을 보는 순간, 내 가슴 밑바닥에 박혀 웅송그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았던, 그 칼자국이 아직도 나의 내부에서 나뭇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나에게서 그 기억을 이끌어낸 칼자국은 이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바다

의 영해와 하늘의 영공이 나라마다 분별이 있다할지라도 바다와 하늘은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그저 바다이고자 했고 그저 하늘이고자 했을 것이다. 바다를 물통에 나누어 가질 수 없음과 하늘을 찢어 나눌 수 없음이다. 나는 그의 칼자국을 그 차원에서 공유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을 때였다. 인도양에서 나에게로 낫선 편지 한 통이 왔다. 편지봉투에는 모리셔스공화국우체국 주소만 적혀 있었고, 편지 한 귀퉁이에 직인이 박혀 있었다. 직감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나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였다.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다의 것이라 생각되어졌다. 바다에 침잠되어 해저 밑에 가라앉은 침물선처럼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겼었다.

편지 첫머리에는 할머니의 안부와 가출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은 잘 있으니, 공부 잘 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는 부탁이었다. 답장을 할 수 있는 주소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껴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며 눈물콧물을 쏟아냈다.

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모리셔스공화국을 지도로 찾아보았다. 인도양, 마스카렌 제도에 있는 섬나라였다. 또 다른 정보는 그곳은 초록색의 야자수가 섬으로 둘러쳐 있고, 비취색보다 더 아름다운 새파란 바다물빛이 환상적이며 태양이 온통 섬을 휩싸고 있어,

천혜의 낙원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인도양의 그 낙원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신이 만든 숨은 보석, 그 낙원에 있다는 아버지와 나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대학을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귀로에 서 있었다. 할머니의 말로는 아버지는 사라지기 전에 카드빚으로 도망을 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 있다면 가출한 어머니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씨앗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일찌감치 물러났다. 그 피를 준 할머니도, 그 피를 이어 받은 나도 모두 싸잡아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긴 것일까, 어머니는 내게서도 홀연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은 야밤이었다. 아버지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다. 할머니와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나의 이마를 잠시 만지는 것으로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었다. 그 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문밖에 기척이 들리면 잠을 자면서도 벌떡 일어났다. 지금도 방안에 불을 켜고 자지 않는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애써 코를 골며 잠자는 척했지만 할머니의 성마른 밤의 기척에 밤잠을 설쳤다.

아버지로부터 두 번째 편지가 왔다. 첫 번째 편지가 온 일 년 뒤였다. 편지봉투에는 저번 것처럼 같은 나라이름과 우체국주소가 적혀 있어, 아직도 아버지는 낙원이라는 그 모리셔스공화국에 있음이 분명했다. 편지에는 통장으로 다달이 월급이 들어갈 것이니, 대학등

록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통장에 찍힌 송금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회사이름이었다.

그 회사는 아리랑 호였다. 전국에 있는 아리랑 호는 수없이 많았다. 그곳에 한 곳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선박은 참치 어업을 하는 원양어선으로 인도양에서 어업을 하는 중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아버지가 낙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양어선을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고래를 잡는 꿈을 가진 바다소년에서 참치를 잡는 바다소년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도시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바다소년의 자신을 기억하며 살았었다. 바다소년은 할아버지의 어선이 폭풍우에 휩쓸려가고 실종이 되고부터 고향을 떠나야했다. 바다소년은 도시에서도 바다를 꿈꾸었다. 바다가 바다소년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아마도 꿈꾸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하곤 했다.

-난 이런 탁한 도시에 살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어.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고래 뱃속에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악몽을 꾸곤 했지. 철민아?

-네. 바다소년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다소년으로 바다를 보면서 꿈꾼 것이 뭐 줄 아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꿈인가요?

-그렇지. 바다소년은 그 전에만 바다를 바라보았으니까... 난 네 할아버지처럼 작은 어선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난 지구를 돌고 싶었어.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 지금은 이렇게 회사에 다녀 옴짝달싹도 못하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난 바다로 갈 거야. 그 꿈은 사라졌지만 나의 마음속에 바다소년은 늘 바다를 향하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그 해답을 찾으려면 바다가 정답을 알려줄 것 같단 말이지. 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되면, 원양어선이라도 탈거야.

-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꿈은 꾸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질문인데... 이 아버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바다는 그걸 알려줄 수도 있지.

아버지는 그때 선장이 되어 뱃머리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자신을 상상하지는 않은 듯했다. 회사가 부도나고 작은 사업이라도 하려고 시작한 것조차 시원찮았다. 카드빚까지 써가며 노력했지만 회생할 수 없었다. 결국, 카드빚과 또 다른 사채로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는 도망자신세가 되었다. 아버지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 바다를 꿈꾸었을까 모르겠다. 아마도 원양어선을 탔다면, 그 옛날 말했던 것처럼, 다시 용기를 찾고 있는 것일까?

참치를 잡은 아버지의 노력한 대가는 다달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한동안 그것은 가족의 동력이 되었다. 가족이라야 달랑 할머니와 나 뿐이지만 정 한가운데 아버지가 존재했다. 그즈음, 할머니는 입버릇

처럼 말했다.

철민아, 이 할미가 죽으면 화장해서 서해바다에 뿌려라.

나는 할머니가 죽는다면 뱃가루가 서해바다를 지나서, 아버지가 참치를 잡는 인도양으로 흘러갈까 상상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적힌 모리셔스공화국 우체국주소로 여러 번 편지를 보냈다. 어떤 회신도 없었다.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아리랑 호 본사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본사 직원은 묵묵부답이었다. 더구나 어느 날부턴가 더 이상 아버지는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바다가 없어진 것을 의미했기에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때마침 해양수산본부 담당관이 집으로 전화를 주었다. 담당관은 국내와 해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불법조업부서에 있었다. 그는 국외파트를 다루는 듯했다. 그의 테이블에 놓인 여러 자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그곳에 왜 갔는지를 암시했다. 중국이나 여타 인근나라들이 서해나 동해 등의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국내 파트와는 다르게 영자로 된 문서들과 신문들이 즐비했다.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는 한국의 불법참치원양어선의 조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여러 장 보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인도양의 참치불법조업을 멈추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도 놓여 있었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학술지에 참치가

곧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도 실었다.

담당관은 아버지에 대한 내막을 짧게 말했다.

“모리셔스공화국 당국에 수사를 받고 그곳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나의 눈앞에 모든 사물들이 까맣게 변해졌다. 잿더미 같은 희뿌연 가루가 시야를 가리고 물안개가 그 사이로 밀려들어왔다. 담당관이 말을 이었다.

“선주가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니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으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아리랑 호 선원들이 그곳 경비대원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맞서다, 그만... 다른 이들은 도주를 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유독 아버지만 잡혔습니다. 하필, 어느 선원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 경비대원을 상해한 혐의를 모두 아버지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다의 거친 물보라가 나의 얼굴로 와락 덮쳐지는 듯했다.

“일례로 보아, 벌금을 내고 나왔지만 이번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벌금을 낸다하여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참치업계도 이제 긴장해야죠. 대부분 불법어업으로 참치통조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부서에서도 영사관과 협력을 수차례 했습니다. 잘못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강도 있게 본보기로 조치한 것이라, 벌금

으로 힘들 겁니다. 불법어업과 상해치사협의를 국제법에 적용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태 추이를 바라보아야겠지만 일단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업무라서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싶었다. 안개처럼 아스라이 사라졌다 다시 또렷하게 다가오는 영상들이 스쳐지나갔다.

먼 수평선이 보이는 해안,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린 나와 함께 해안을 한참을 걸었다. 어느 한 지점, 모래가 많은 곳에서 모래성을 쌓았고, 모래에 온몸을 파묻고 모두 다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가족에게 구름은 없을 것이라 예견했다. 밀물이 들어오기 직전, 호미를 들고 조개를 캐다. 구멍 속으로 올라오다 다시 들어가는 조개들의 간들거리는 속살에 나는 껍껍 웃음을 굴렸다.

어머니는 유독 많은 조개를 캐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은 활짝 핀 나팔꽃 같았다. 어머니가 가출한 뒤, 얼굴조차 희미하게 기억되지만 그 얼굴은 선연하게 떠올랐다. 할머니에 묻혀 까맣해진 어머니의 잔상은 그 나팔꽃 같이 웃는 모습이었다. 모래더미에 나를 파묻어 놓고 조개들과 같이 낮잠을 자라고 말한 것도 어머니였다. 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해안 솔숲에 텐트를 치고 둘러앉았다. 솔향기가 코끝으로 들어가 세상 모두가 향기로운 것들로 가득해보였다.

아버지는 조개를 구웠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조개구이를 먹는 맛은 일품이었다. 그때 연기가 심하게 났다. 모두들 연기에 눈물을 흘리자, 아버지는 말했다.

이런 눈물은 낭만적이야.

나는 아버지가 불법참치어업을 하다 그곳 특별단속반과 사투를 벌였을 그 바다에서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거친 파도와 거친 몸짓, 필살기의 움직임, 율동과 리듬이 격동적이었을 그 광경,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또 맞닥뜨린 아버지의 절망, 그를 바라보는 그곳 감옥에서의 벽, 벽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행한 눈빛.

나는 힘없이 담당관에게서 몸을 돌렸다. 그때, 담당관이 컴퓨터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하더니, 나를 붙들었다. 그는 여러 파일 중에 한 파일을 열었다. 파일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담당관은 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지금 현 얼굴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모리셔스공화국 당국에서 보낸 자료죠.”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모니터 속에 사진을 살폈다.

야자수 잎이 커다랗게 새겨진 남방셔츠를 입은 상반신 사진이었다. 누렇게 퇴색된 얼굴빛과 눈가에 성긴 주름살이 그득한 닳은 남자가 눈을 계슴츠레 뜨고 먼산바라기를 하듯 초점 없이 있었다. 어느 새 귀밑머리까지 내려온 흰머리는 초겨울 텃밭에 내린 첫서리같

이 을씨년스러웠다. 어깨와 얼굴로 이어진 길고 깊은 상처는 피범벅이 된 채로 딱지가 붙어 있었다. 화면상으로는 그 상처자국이 꽃뱀이 그의 얼굴에 타고 올라가는 듯했다.

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상처를 자세히 보고 싶었다. 담당관에게 더 크게 화면을 확대해 달라 부탁했다. 칼자국은 수술을 하지 않아 살이 트여진 그대로 방치한 것이 틀림없었다. 피범벅이 된 채로 말라버린 딱지가 더께가 되어 떨어져, 붉은 속살이 볼품사납게 올라와 굳어버렸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담당관은 생각한 것보다 깊은 칼자국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해 보였다. 그는 아버지가 확실한지 다시 확인하라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컷볼에 있는 검은 반점을 보고서야 담당관에게 어떤 말로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 후, 매일 밤, 바다 위를 걸었다. 밤을 지배하는 달은 없었다. 저녁도 새벽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도 사라져 수평선도 없었다. 나는 국경선처럼 수평선을 타고 넘었다. 무서운 눈동자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녔다. 그 눈동자에 응고된 시간을 상상했다. 무식보다 더 단단하고 신보다 더 견고한 결정체였다. 아버지의 눈동자를 찾으려고 더듬거려 기어가지만 바다는 늘 평온하게 나의 꿈속이나 깊은 잠 속에 잠겨 있었다. 희뿌연 안개가 덮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묻혔다. 다시 바다 위를 걸어, 갔

던 길을 힘겹게 빠져나오려하지만 사방으로 터진, 무한한 바다 길에 막혔다. 그런 망상은 매일 밤 유전자처럼 물려주고 물려받고 분열되어, 나의 몸과 마음을 노엽게 만들었다.

일 년에 한 번 꼴로 해양수산본부를 찾았다.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아버지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했다. 담당관은 그 사이 다른 사람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 그들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 영사관과 정부에서 불법어업으로 수감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한동안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절박감이 더 앞섰으므로, 나는 전 화기의 진동을 주시하면서 그로부터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다. 가슴에 묻혀 있는 둥글고 큰 실뭉치가 갈비뼈 사이로 치받아 무두질을 할 때면, 꺾, 브레이크를 밟는 요란한 소리가 온몸에 신경세포로 전해졌다. 나는 실뭉치를 지키는 성문 앞에 수문장 같았다. 실뭉치는 그동안의 시간과 기억을 시계태엽처럼 감아놓았다. 나는 그 속으로 아버지의 깊은 칼자국을 연신 감아올렸다.

어느 날,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지에서 아버지와 연관된 사건의 경위를 알려왔다고 했다.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오년을 감옥에서 보내던 중,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탈옥을 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한국이 아니었다. 당국경찰에 쫓기고 있었기에 도망쳤다.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는 절벽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시간은 뒷걸음쳐, 바다소년이 되어 있었다. 검푸른 바다를 보며

고래뱃속에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바다소년의 아버지를 생각했을까?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고래를 잡는 꿈을 계속 꾸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자, 양팔을 벌리고 힘차게 바다로 뛰어내렸다.

*

중국어선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곧 뒤집힐 것만 같았다. 회오리바람처럼 철퇴가 나의 머리 위에서 돌아갔다. 나는 철퇴를 든 남자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기위해 바싹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쇠골에서 얼굴까지 이어진 긴 칼자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옆에 선 동료가 위협하다며 나를 잡아챘다. 동료는 좀 더 빠르게 철퇴를 휘두르는 남자에게 급기야 가스총을 발사했다. 남자는 가스총 따위에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 대원 서너 명이 달려와, 남자와 맞섰다.

그 중 한 명의 동료가 이런 강력한 상대는 결국 피를 보아야 끝난다고 말했다. 태권도사범이었던 그가 발차기를 할 태세를 했다. 나는 철퇴에 맞아 다치면 발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 만류했다. 동료는 되레 나를 나무랐다. 동료는 발을 뻗어, 철퇴를 향해 빠른 동작으로 걷어찼다. 빠른 속도에 힘이 실렸다. 동료의 군화와 남자의 철퇴는 동시에 바다 속으로 떨어졌다.

남자는 심장을 빼앗긴 사람처럼 무섭게 변했다. 그의 얼굴에 칼자국이 이상한 형태로 일그러지며 동료의 몸을 두 주먹으로 밀쳤다. 또 다른 동료들이 내가 있는 갑판 쪽으로 다가와, 남자를 제압하고 손에 수갑을 채웠다. 남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우리 측을 향한 것인지, 바다를 향한 것인지, 그 자신을 향한 것인지 몰랐다. 카모프 헬기는 그 순간에도 연막탄을 계속 쏘아내려, 나의 시야를 온통 가렸다. 남자의 칼자국은 바다 햇살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날, 중국어선과 선원들은 성공리에 나포되었다. 인터넷에선 어느 새 기사가 났다고 동료가 귀띔했다. 서해 영해 12마일을 침범한 저인망, 쌍그리 어선인 중국어선 5척과 선원 30명을 해양경찰청 특별단속반이 나포했다. 기사에서는 카모프 헬기의 확장을 거론했고, 중국선원들과 대원들의 부상은 그리 부각되지 않았다. 우리 측 동료들의 부상만큼이나 중국선원들의 부상도 많았다. 나는 동료인 이민식의 생사가 궁금했다. 아마도 기사에 사망자 소식이 없었으므로,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으리라 짐작되었다. 그의 동영상 이 다시금 스쳐지나갔다. 크게 울리던 태아의 심장박동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나는 항구로 나포되어 가는 중국선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철퇴를 휘두르던 남자의 뒷모습이 덩그렇게 보였다. 더 기울어진 어깨는 곧 가슴팍으로 파묻혀질 것 같았다. 태양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황혼으로 지는 노을빛은 구름에 갇혔던 대낮의 향유를 못내 아쉬워, 마지막 토악질을 바다위에 쏟아냈다. 나는 끝내, 달려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다.

모리셔즈공화국 경찰은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실종처리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도 바다소년이 되어 어느 바다에선가 표류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휘어져 웅크리고 있는 남자의 등을 눈빛으로 어루만졌다. 그리고 노을빛에 투명하게 보이는 그의 껌볼이 아주 맑게 보인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림자고래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조요섭



사내 하나가 고래 같은 울음을 꺾이꺼이 게워낸 날이 있었다.

부력에 익숙해진 그에게 물은 디디기 버겁고, 물은 숨을 쉴 수 없는 곳이었다. 육지도 바다도 아닌 곳이 필요했다. 사람도 없으면 좋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태안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인 옹도에 들어가 살았다.

옹기의 숨구멍을 통해 풍화되어간 것은 이제는 노인이 된 그의 몸뚱이였을 뿐, 바닷바람에 바뀌어 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섬은 그가 처음 발을 디딘 날로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앞날의 생들에겐 마치 향아리처럼 보여 옹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지 몰라도 노인에게 그 무인도는 꼭 고래와 같은 섬이었다. 거친 질감의 암석들과 깎아지른 절벽은 섬의 몸피를 둘레둘레

감싸고 있었다. 저 멀리 하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흡사 귀신고래의 등과도 같아 보였다. 무수한 상처가 새겨진 녀석의 등에는 바다 벼룩, 따개비들이 바위처럼 붙어 기생하는데, 그 광경을 슬하게 보았던 노인은 자신의 까막눈으로 옹도의 등 또한 설움이라 읽어 내렸다.

또 하나, 고래가 숨을 쉬며 뿜어내는 물줄기처럼 길고 허연 기둥이 섬의 정상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등대였다. 바닷길을 지나는 선박이 관장목의 거친 물살에 항로를 잃지 않도록 빛을 전달하는 일은 지금껏 옹도 등대장인 노인의 몫이었다. 아버의 끝자리는 늘 서쪽이라 말하곤 하지만, 그가 서해안에서 일몰을 아주 지켜보게 된 것은 울산 아침 바다와 같은 젊은 날을 한창 보내고 난 뒤부터였다.

그는 등대장이 되기 전, 울산 장생포에서 작살포의 방아쇠를 움켜쥐던 포수였다.

“시탄바이!”

포수가 준비하라는 말을 외치면 갑판 위의 선원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붙잡고 자세를 낮췄다. 출항이 길어지면 측간과 식당의 구분은 사라지고, 볼일을 보는 바로 옆에서 밥덩이를 넘기는 것조차 선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범사가 된다. 그런 뱃사람들에게도, 작살포가 발사될 그 순간만은 먹고 비울 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숨이 폐장을 드나들었다. 작살을 맞은 고래가 고통에 몸부림치면 포경선 또한 격하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녀석이 경미한 상처만을 입으면 그대로 돌진해서 몸통으로 배를 부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 사실을 아는 포수 백성만은 ‘스탠바이’의 일본식 발음을 외치고는, 다음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올 고래의 위치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포대 앞에 서서 연신 물길을 살피고 있던 그는, 녀석이 수면 위로 가까워질 때 뇌를 단번에 맞힐 생각이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자 녀석의 고통을 줄여주는 길이기도 했다.

“미안타. 먹고 살라 해도 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이가. 고통 없이 보내주꾸마.”

그 말과 함께 성만은 물 아래에서 막 올라오려는 그림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시탄바이를 외치려면 ‘코쿠’소리를 수천 번은 들어야 했다.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불로 밥을 짓는 것은 어딜 가나 막둥이의 몫이었다. 아예 불이라는 뜻을 새겨 넣은 화장(火匠)이라는 직함도 있었지만 갑판에서 더 많이 불리었던 이름은 요리사를 뜻하는 쿡(Cook)의 일본식 발음, 코쿠였다. 성만은 열다섯에 코쿠가 되어 처음 배에 올랐다.

어릴 적부터 뱃일을 시작해 목선(木船)과 철선(鐵船)을 두루 타본 성만은 고래 잡는 일에도 영민한 전략의 역사가 서려 있음을 아는 산증인이었다. 목선이 고래가 있는 곳으로 은밀히 다가가 잡는 방법을 썼다면, 철선은 음파를 보내어 고래를 도망가게 한 뒤 추격 끝에 녀석의 힘이 빠지면 잡는 방법을 썼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도 물속에 있을 수 있는 녀석들이기에 추격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고래가 어느 때에 어느 지점에서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올지 그리고 그 찰나 같은 호흡의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작살을 발사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포수의 역량에 달린 문제였다.

“백 포수야, 와 그리 빨리 당깁노?”

방아쇠가 당겨지자, 포대 뒤쪽 갑판에서 몸을 낮추고 있던 선장이 물었다. 성만은 선장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아래를 응시했다. 코쿠에서 포수가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갑판 위를 성실히 누빈 성만은 명포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진양 6호라는 거대한 철선의 작살포를 쥐고 있었으니 장비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물속에서 몸을 감추고 있던 귀신고래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였다. 고래는 숨이 짧은 것은 성격이 온순한 편이지만, 긴 것은 아주 난폭하다. 귀신고래는 숨이 긴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녀석은 홀연히 물속으로 사라지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귀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만은 그림자를 향해 방아쇠를 반 박자 빠르게 당긴 것이었다. 녀석이 수면 위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말이다.

“내가 묻는데 와 말이 없노. 대답 좀 해 봐라. 잡았나?”

작살은 물 아래로 향했고 귀신고래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포대에 놓여 있던 밧줄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실타래가 풀리듯 요동치던 밧줄은 잠시 후 움직임을 멈췄다.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뇌를 관통하여 즉사시켰거나 아니면 작살이 녀석을 벗어난 것이었다. 불

길한 느낌이 성만의 뇌리를 스치던 순간, 잔뜩 역정이 나 있던 선장은 포대 위로 올라왔다.

그때 불현듯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딱 진양 6호의 절반 크기인 몸통이었다. 녀석은 선체 쪽으로 돌진했다. 충돌이 일어나자 강한 진동이 일었고 고막을 찢을 것 같은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곳곳에서 비명도 들려왔다. 높은 파고를 그리는 고성이었다.

녀석은 배를 두어 차례 들이받은 뒤 홀연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충격으로 저도 다쳐 내려앉은 것인지 단순히 몸을 감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녀석의 등에 있는 술한 상처들 틈에 또 하나의 흠집이 새겨졌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다들 괜찮나!”

피해가 컸다. 선체가 흔들렸던 과정에서 몇 사람들이 물 아래로 떨어졌고, 선상의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이들도 있었다. 그날 코쿠 하나는 돌출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그만 숨지고 말았다. 포수 아버지를 따라 배에 오른 고작 열일곱의 소년이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주었던 손전등이 시신의 주머니 속 유품이 돼 버린 그날 이후, 성만은 아들을 보낸 동해를 등지고 서쪽으로 건너왔다. 옹도와 귀신고래처럼 성만도 아픈 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쪽으로 오던 날은 고래 같은 울음을 껴이껴이 게워낸 날이었다.



팔미도등대

*

그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

늙은 등대장 성만은 난간을 잡으며 원통형의 등탑을 오르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머리칼이 허영게 세어버린 것은 오랜 세월 등대에서 품어온 빛이 옮겨온 탓일지도 모른다. 것처럼 허영고 뿌연 안개가 서리는 밤이었다. 안개 속 선박들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성만은 무신호(霧信號)를 보내기 시작했다.

등탑을 보며 아무 까닭 없이 세 번쫘은 통곡을 해야 진짜 등대지기 되던 어느 소설의 글귀를 성만은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구불구불한 활자가 아니라 뒤틀린 삶의 굴곡으로 충충히 그의 가슴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옹도의 빛을 품는 일을 막 시작하던 때의 성만은 한참 동안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딱 오늘 같이 안개가 짙던 어느 날 멍멍한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자 초임 등대원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 소리 역시 무신호였다. 등대원 성만은 무신호를 처음 들었을 때, 앞날 포경선 위에서 들었던 흑등고래의 노래가 떠올랐다. 그 날 어미와 새끼는 포경선의 추격을 피해 함께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만 새끼만 잡히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어미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포경선으로 다가와 새끼의 옆에 몸을 붙이는 것이었다. 금세 기력이 빠져 몸부림도 제대로 치지 못하던 어린것은 숨이 곧 끊어질 것처럼 보였다. 저항 없이 몸을 붙이고 있는 어미 고래를 새끼와 함께 묶고, 배는 육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흑등고래의 긴

노래가 시작됐다. 어린것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듯했다. 만선의 깃발을 올린 것을 사뭇 죄스럽게 만드는 장송곡이었다.

그날의 노래 같은 신호 소리가 끝난 오늘, 선박들은 안개를 뚫고 지나갔다. 그때 문득 다른 배 한 척이 옹도의 선착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성만의 눈에 보였다. 2주에 한 번씩 오는 물자보급선이었다. 성만은 손전등을 들고 선착장 아래로 내려갔다.

“백 대장, 잘 지냈소?”

보급선의 선장이 물었다. 선장은 성만이 자신과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상 그를 친히 대하곤 했다.

“뭘 묻습니까. 노인네 생활이 다 똑같지.”

“그래도 백 대장 고생이 어디 이만저만인고? 말년에 인원 감축해 가지고 로테이션도 못 돌리고 이게 뭘 짓이요, 참말로.”

그는 몸소 보급품을 내리며 말했다. 선장이라 해봤자 혼자였다.

“허허, 뭐 곧 없앨라고 그라는갑지예.”

선장의 말대로 본래 2교대이던 등대 근무가 상근의 형태로 바뀌고 말았다. 대장 한 사람과 대원 한 사람이 보름 간격으로 옹도와 육지를 오가며 교대로 순환 근무를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1명으로 인원이 감축된 것이다. 나날이 유인등대가 무인등대로 바뀌고, 등대 자체가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세태를 생각해 본다면 마냥 누구의 탓을 할 일은 아니었다. 성행했던 포경업이 어느 날 사라졌듯, 그저 시대적 요구나 자연적 쇠퇴 앞에 선 옛것과 옛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결과였다.

“아따, 그 후라씨 좀 바꾸소. 엔가이 오래 됐는갑네. 그게 대체 언제적 거요?”

“허허, 이거 일제라서 아직 쓸 만한데 와 그랍니까.”

성만이 손전등을 한 번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여전히 지니고 있던 아들의 유품이었다.

“그건 그렇고 그때 말한 거… 지금도 생각 없지요?”

“.....”

“마, 됐소. 곳곳한 양반한테 괜히 또 말실수했네. 내가 미안하요. 안 된다고 해도 한 번만 더 물어봐달라니까 내 입장도 참.”

선장은 인척의 부탁으로, 한때 이름난 포수였던 성만에게 고래 포획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말을 전달했다. 작살포로 행하는 직접적인 포경이 아니라 그물과 통발을 적당한 ‘자리’에 깔고 포획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으면 불법 포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장의 인척은 어선으로 적당한 자리에 그물을 놓아 본래의 어획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바다의 로또가 걸리는 것을 기다리려는 생각이었다. 그는 명포수였던 성만에게 단순히 자리 몇 곳만 짚어달라는 것이 그리 욕될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로또번호 대신 골라주는 회사가 신뢰성에서는 욕을 먹어도, 합법 여부에 대해선 그다지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성만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언젠가 TV에서 한때는 타짜였던 이가 지금은 평범한 농부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인지 오래 전 은퇴한 타짜

에게 술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타짜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다.

인척의 부탁이 선장을 통해 전해졌을 때, 성만은 문득 그 타짜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신이 꼭 그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감히 비할 바인가. 비록 타짜가 방탕생활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저지른 도박은 과거에도 엄연히 범죄가 아니었던가. 더구나 한갓 도박판에도 개평을 챙겨주는 것처럼 나름의 상도덕이 있는 법인데 그 판에서 손기술을 써 상대를 속인 것은 더욱 지탄받을 일이었다. 그렇다면 포경은 어떠한가. 지금은 불법이 됐다고 하지만 과거엔 엄연히 하나의 산업이었다. 짧은 날을 갑판의 역군으로 살아온 그에게 위장 포획 자리나 짚어달라며 제안을 하다니, 비록 악의 없이 건넌 부탁이라고 해도 그를 받아들인다면 성만 스스로가 자신의 앞날에 진흙을 집어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늦었네예. 그만 들어가이쇼.”

성만의 배웅으로 물자보급선은 선착장에서 떠났다.

성만은 화물용 모노레일에 보급품을 실어 정상의 등대로 올려 보냈다. 자신은 경사진 계단길을 걸어 올라갔다. 오르며 곱곰이 생각했다. 거절에 있어서 포수로서의 자존심이나 도덕적 양심 같은 것은 사실 부수적인 이유였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래를 상대하는 일을 두 번 다신 할 수 없는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모노레일이 정상에 올랐을 때 성만은 대뜸 발을 옆으로 돌려 웅

도의 언덕을 거닐었다. 찔레꽃과 동백나무, 천남성이가 곳곳에 모여 이룬 군락은 아름다웠다. 반대쪽으로 걸어가면 절벽과 거친 암석이 있고 위로의 외로운 등대가 처량하게 서 있는데 이쪽 언덕으로만 들어서면 거짓말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젖은 감정이 때때로 사무치던 날마다 성만이 가끔 찾곤 하는 곳이었다.

술한 고래를 상대한 그에게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두 녀석이 있었다. 흑등고래와 귀신고래였다. 새끼의 죽음에 애끓는 노래를 부르던 녀석이 흑여 진짜 귀신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아들을 앗아간 건 아닐까, 그래서 앞날에 저지른 죄와 똑같은 참척의 벌을 자신에게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적 없는 외딴 섬, 홀로 밤을 보내야 하는 등대는 인생을 회고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성만은 고래가 뱉는 물줄기 같은 그곳에 갇혀 내내 원죄와 회한에 젖어져 가는 것이었다.

그는 언덕에 앉아 바다 쪽을 잠시 바라봤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았지만,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컷전으로 굽이치는 소리는 오르고 내리는 파도를 담담히 전달하고 있었다. 너저분한 것은 모두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늙은 감정이 오늘 하루 잠깐, 아주 잠깐 그 파고가 높아져 흔들렸을 뿐이다. 성만은 그리 생각하고는 언덕에서 내려와 다시 찬찬히 계단길을 밟으며 정상으로 향했다.

모노레일은 등탑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보급품을 살피러 다가간 성만은 박스 하나의 모양새가 이질감을 풍기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일자로 부착돼 있던 테이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박스의 네

날개가 서로 맞물려 접혀 있는 상태였다. 선장의 짓일 리 없었다. 그 박스는 보급품을 모노레일로 옮겨 실을 때 성만 자신이 직접 맨 위에 마지막으로 쌓은 것이었다. 참치 캔 박스였다. 중히 여기는 보급품이었기에 등대 옆 초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내릴 생각으로 맨 위에 실은 것이다.

섬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었다. 성만은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 작은 섬에 사람이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잠깐 주위를 헤매던 동공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은 등대였다. 성만은 곧바로 등대 쪽으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를 줄이려 발에 힘을 빼고 천천히 등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긴장한 탓에 어느새 등에는 굵은 땀줄기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문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성만은 램프가 있는 위층에 다다랐다. 꺼땡고 야윈 다리 하나가 램프 아래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은 램프의 커다란 몸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발 뒤쪽으로, 개봉해서 다 먹은 듯 보이는 참치 캔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거기 누구요!”

성만이 소리쳤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다. 하필 몸을 숨긴 곳이 발각되면 도망칠 길 없는 등탑 꼭대기라는 사실이며, 캔 하나만 빼고는 고이 접어둔 박스며 침입자의 행동은 어딘가 영성했다.

“.....”

성만의 외침에 무언가를 문질러대던 소리가 멈췄다. 램프 옆으로
파리한 얼굴 하나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왔다. 이국적인 얼굴의
청년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말하는 청년은 맨발이었고 상의도 벗고 있는 상태였다. 그
의 손에 들린 것이 윗도리인 듯 보였다. 하얀 옷이었지만 까만 얼룩
이 많이 묻어 있었다.

“외국 사람인교? 외국인?”

성만의 물음에 청년은 그저 고개를 두 차례 끄덕였다. 여전히 긴
장한 모습이었다.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었소?”

성만이 다가가자 당황한 청년이 몇 보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그
만 바닥에 놓인 참치 캔을 밟고 말았다. 청년의 한쪽 뒤통치에 얹지
않은 상처가 생겼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일단 내려가서 치료부터 하입시
다.”

성만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발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 말 대충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데, 뭐라 캐야 되노… 유 엠뷰란스! 엠뷰란스!”

무인도에 병원이 어디 있고 엠블런스가 어디 있겠나. 성만은 그
저 급박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던졌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아직
경계를 풀지 못한 청년을 곧장 초소 쪽으로 옮겨 치료할 생각이었

다. 그 와중에 성만은 급박한 그 순간에도 램프의 렌즈가 매우 반짝이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 빛이 켜진 탓이 아니었다. 청년이 정성을 다해 닦아놓았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참치 캔 하나의 보답이었다.

쿠앙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는 외노자였다. 한국말을 알아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말을 하는 것도 발음만 다소 어눌할 뿐 제법 유창한 실력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왔으리라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 성만은 쿠앙의 국적에 대해 묻지 않았다.

술한 노동의 현장을 거쳐 쿠앙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은 태안의 한 수산물가공업체였다. 노임벌이란 게 늘 고된 일이긴 했지만 고국에 있는 가족들 앞으로 부칠 만큼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의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생겼다. 그가 온 뒤로 외노자들의 초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체불까지 발생한 것이다. 임금 지급이 계속 밀리는 상황 속에, 바다 근처에서 근무하며 바다 건너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심정이 어땠으랴. 결국 쿠앙은 유창한 한국말 솜씨로 노동부 지청에 도움을 청했고, 업체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쿠앙이 총대를 멘 것은 그저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됐고 한국말을 곧잘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웬 야밤의 린치 시도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표는 용역깡패를 시켜 딱 한두 달 일 못 할 만큼만 쿠앙을 두들겨 주라고 주문했다. 외노자에겐 일할 몸이 밥줄이고 생명이다. 대표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쿠앙은 오늘 저녁 끼니를 사들고 오던 귀갓길에, 숙소 앞을 어슬

렁거리고 있던 어깨들을 보고는 곧장 줄행랑을 쳤다.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였다. 쫓아오는 그들을 피해 달린 곳이 항구였고 몸을 숨긴 곳은 어느 배의 화물칸이었다. 그리고 그 배가 보급품을 싣고서 옹도에 온 것이다.

초소에서 쿠앙의 발을 치료하는 동안 이 모든 이야기가 성만에게 전해졌다. 긴 문장이 두세 단어로 축약되는 탓에 몇 차례 혼선이 있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쿠앙, 앞으로 2주는 더 여 있어야 된다. 여 들어오는 배가 그것 뿐이 없어. 보급품이 들어 먹기엔 빠듯한데 걱정이네. 푸드 리틀… 오케이?”

“물꼬기, 나 물꼬기 잡을 줄 알아요.”

※

며칠 후, 낡은 조각배 위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뚜 마리! 미스터 뻥, 뚜 마리!”

“뻥이 아니라 백이라니까, 백.”

쿠앙이 잡아 올린 쥐노래미까지 꼬리를 푸드덕거리자 배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두 마리가 고무대야로 들어섰다. 쿠앙은 도움을 준 성만에게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고 싶었다.

저번 밤 쿠앙은 초소에 박혀 있던 구식 낚싯대를 발견하고는 능숙한 솜씨로 손봤다. 앞날에 한 등대원이 물으로 아주 돌아가면서 옹도에 남겨둔 것이었다.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조각배는 때때로 성만이 선착장 반대편 절벽 해안으로 갈 때 사용하던 것이다. 걸어서 갈 수 없던 그쪽 해안의 암석들에는 먼 바다에서 갖가지 쓰레기들이 밀려와 걸리곤 했다. 섬의 반 바퀴를 빙 둘러 그곳에 가면 빨간색 콜라페트병을 만날 수도 있었다.

쿠앙은 그 조각배를 타고 태안의 물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간간이 낚시만 할 수 있을 뿐, 수심 깊은 곳까지 가기엔 너무도 허술해 보이는 그 배는 오랜 세월 절벽 해안을 청소하는 데만 사용됐다. 성만이 낚시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포경선의 포수가 물고기 낚시를 못한다 하면 물사람들은 혀를 찰 것이다. 같은 ‘물일’인데 어찌 못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말이다. 뱃사람에 대한 편견이 그런 거다. 멀찍이서 보면 한테 다 섞여 있는 것만 같은 바다도, 그 아래에서는 슬한 어생들이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치열한 호흡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더구나 갑판 위의 인생들도 분업을 알고 역할이 있기에 비로소 장인이 되는 것이다. 젊은 날 작살 잡을 줄만 알았던 포수가 낚싯대를 잡아본 적이 없다는 건 결코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많이도 잡혔네. 그만 돌아가자.”

“.....”

어느새 가득 채워진 고무대야를 보고 성만이 말했지만 쿠앙은 대답이 없었다. 선미에서 뒷모습만 보이고 있던 쿠앙은 갑작스레 낚싯대를 뿌리쳤다. 그러더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고무대야를 들어 물고기들을 모두 바다에 놓아주는 것이었다.

“쿠앙! 니 와 그라노?”

놀란 성만이 선미 쪽으로 다가왔다. 그때 불현듯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멀지 않은 수면 아래, 푸르죽죽한 빛의 물체가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커다란 몸피는 바닷물 아래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성만은 그것을 보고 그날의 귀신고래를 떠올렸다. 마치 귀신고래의 그림자 같았다. 바다의 그림자라는 게 비단 하늘에서 물 위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 아래의 어떤 것은 기어코 수면을 뚫고 올라와 누군가의 눈에 제 존재를 현현히 드러내기도 한다. 어떤 그림자는 때론 빛보다도 밝을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커다란 것이라면 말이다.

현기증이 찾아온 성만은 배 위에서 한 차례 휘청거렸다. 쿠앙은 그를 부축해 앉혀 놓고는 곧바로 선착장으로 배를 돌렸다. 그 사이 그림자는 귀신처럼 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선착장에 도착해 곧바로 초소 쪽으로 올라갔다. 쿠앙은 내심 성만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이 물고기를 놓아준 탓일 거라 생각했다. 초소 안에 들어서자 쿠앙은 잡은 물고기를 놓아준 이유를 성만에게 말했다.

“안 그러면 크닐나… 크닐나요.”

쿠앙은 자기 나라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찬찬히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의 고국에서도 바다 근처 마을에 살았다. 그곳 바다엔 때때로 그림자고래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다. 녀석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잡아 올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놓아주어야 하고 잡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곧바로 물으로 돌아와야 벌을 면한다는 게 전설의 내용이었다. 쿠앙은 고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자고래를 타국의 외판 섬, 옹도에서 보게 된 것이다.

의자에 기대어 있던 성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좋지 않던 표정이 더 구겨진 것 같았다. 쿠앙은 괜스레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도망쳐 온다고 끼니도 못 챙기고 굶주렸던 날, 발을 치료하는 동안 먹으라고 선뜻 즉석밥과 함께 참치 캔 하나를 더 건네준 미스터 뽀이 아니던가. 쿠앙은 그런 성만에게 물고기를 대접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니도 바다 근처에 살았다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성만이였다. 그의 말에 쿠앙은 대뜸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책상에서 연필 하나를 집고는 여러 메모가 적힌 노트도 들고 와 성만 앞에 들여보였다. 써도 되겠냐는 물음의 표정을 짓는 쿠앙에게 성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쿠앙은 곧바로 무언가를 그려나갔다. 수평선이 제일 먼저 그어졌다. 한 편엔 산자락이 새겨졌고 곳곳에 민가가 그려졌다. 곧이어 배가 나타나고 사람들도 보였다. 부둥켜 서 있는 사람들의 입꼬리가 기분

좋게 올라간 것을 끝으로 그의 그림은 완성되었다.

“데루므, 내 마을… 데루므.”

“이거는… 성당인가?”

성만은 그림 속의 민가에서 지붕 위로 십자가가 달려 있는 집 하나를 발견했다. 성만의 물음에 쿠앙은 손가락을 들어 그림 속 사람들 중 한 명을 가리켰다.

“김 미카엘, 한국 신부님. 굿 맨, 조은 사람.”

“.....”

“미스터 뻑, 조은 사람.”

쿠앙은 이번엔 자신의 뒤통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직 봉대가 감겨 있는 상태였다. 그가 미소를 띠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았지만, 성만은 일부러 눈길을 피했다.

“아니다. 내 좋은 사람 아니다.”

“.....”

“오늘은 내가 2층에서 자꾸마. 쉬어라, 고생했다.”

성만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귀신고래와의 일이 떠오른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쿠앙에게서 그림자고래의 전설을 듣고는 한동안 잊고 있던 사실이 생각난 탓이었다. 포경선은 다국적선이기도 했다. 앞날에 성만은 선주의 주선으로 적도에까지 내려간 일도 있었다. 같은 크기의 고래도 그곳 인근 나라에선 더 비싼 값에 팔린다는 이유였다. 포경선은 포수나 통역인과 같은 필수 인원만 태운

채 적도 바다로 향했다. 선원을 모으는 것은 항해 중에 들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타국에서 이뤄졌다. 한국에서 선원을 데려왔다면 고래의 포획부터 해체, 처리, 정산까지 현지에서 끝낸 뒤에도 다시 한국까지 많은 인원을 태우고 돌아가야 했다. 그랬다면 노임이며 식량이며 부대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포경선은 값싼 노임의 현지인들을 태워 다국적선이 된 것이다. 선주에게 있어 그들은 배로 태우는 것도, 배에서 내리게 하는 것도 쉬운 존재였다.

이윽고 선원을 잔뜩 싣고 출항한 배 위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구! 아구 어디 갔노?”

성만이 부르자 곧바로 아구가 달려왔다. 아구는 통역인을 일컫는 은어였다.

“이 양반 자꾸 내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통역 좀 해봐라.”

성만은 수면 아래 고래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런 그에게 대뜸 현지인 선원 한 사람이 다가와 알 수 없는 말을 떠들며 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한쪽 눈에 불투명한 백막이 있던 노인이었다.

“그게 글썄, 지금 저놈을 잡으면 안 된다는데요. 돌아가야 한답니다.”

아구는 노인의 말을 통역했다. 성만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식의 표정을 지었다.

“바다에서 저놈을 보면 잡은 것은 놓아줘야 하고, 잡은 게 없으면

바로 물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별을 받는답니다. 이 양반들 나라에 있는 미신인가 봐요.”

“하, 내 미치겠네. 이 급박한 상황에 돼도 앓는 소리를 해대노.”

더 이상 노인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 성만은 몸을 돌려 포대에 올랐다. 그리고는 잠시 가늠질을 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그림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반 박자 빠른 움직임이었다. 작살은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물 아래로 향했지만 무심한 바닷물만을 가를 뿐 아무것도 뚫지 못했다. 성만이 방아쇠를 당길 때 그와 동시에 노인이 몸을 던진 탓이었다. 그로 인해 포신의 방향이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

“무슨 짓이요!”

성만이 고성을 내질렀을 때는 이미 그림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현지에서 출항한 지 닷새 만이었다. 앞서 내내 허탕만 치다가 드디어 닷새 만에 처음으로 발견한 그림자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떠난 시간까지 합하면 두 달이 훨씬 넘었다. 그런데 그것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태어난 새끼의 돌도 치르지 못하고 들어선 적도 바다에서였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성만은 노인을 밀어 넘어트렸다. 갑판 위의 모든 선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볼 때 누군가가 나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데려갔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출항을 이어가던 어느 밤, 두 사람의 선원이 사라졌다. 포경선에 달려 있던 구명보트 한 정과 함께였다. 며칠 뒤 그들은 파도에 밀려온 시신으로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 좋지

않았던 조류 탓이었다. 사라진 두 사람이 부자관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시신 하나는 한쪽 눈이 먼 노인이었다는 것을 성만은 아구를 통해 한참 뒤에야 들을 수 있었다.

초소 2층에 올라가 침대에 앉아 있던 성만은 자기혐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쿠앙에게서 그림자고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이 떠오른 것이다. 자신이 가증스러웠다. 내내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아버지로서 어린것을 배로 데려와 그 사달을 나게 만든 것에만 죽도록 후회하고 스스로를 원망했다. 그런데 그보다 앞날에 있었던 일에는 때때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다가도, 어느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증스러운 망각인가. 두 선원을 죽음의 파도로 떠민 것이 자신이라는 것에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노인을 밀쳐 욕보인 것에 한없이 괴로워졌다. 긴 밤이었다.

밤을 내내 뜬 눈으로 보낸 성만이 1층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느덧 푸른 어스름이 서서히 들어서는 새벽이었다. 1층으로 내려간 그의 눈앞에 푸른빛이 닿는 종이 하나가 보였다. 쿠앙의 그림이었다. 성만은 그것을 붙들었다. 그림 속에 담긴 십자가를 들여다봤다. 평생 종교도 믿음도 없었던 그지만 벽이 없는 마음으로 한참을 마주했다.

“굿모닝! 미스터 뻑.”

경건한 적막을 깨고 쿠앙이 들어섰다. 성만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쿠앙이 보이지 않던 이유는 그의 손에 들린 쥐노래미 몇 마리와 낚싯대로 설명이 되었다. 성만은 그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봤다. 노인과 같은 전설을 아는 쿠앙, 같은 나라를 가진 쿠앙. 그런 그가 어

젓밤 자신을 ‘조은 씨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순간, 더운 숨이 일었다.

“오, 왜 그래요?”

흐느끼기 시작하는 성만을 보고 쿠앙이 물었다.

“앗파요? 앓파?”

쿠앙이 들고 있던 것을 모두 놓고 다가왔다.

“내 때문에… 사람이 마이 죽었다. 아들도, 선원도 내 때문에…”

해체장에서 고래의 허연 배가 갈리고, 온몸으로 짙어지고 있던 것이 모두 쏟아 내려지듯 성만의 묵은 이야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성만은 처음엔 쿠앙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의 속도를 낮추며 쉬운 단어를 썼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어가던 어느 시점부터는 같은 한국인에게 얘기하듯이 편하게 말을 뱉어냈다. 감정이 더욱 고조되던 때였다. 이제 알아듣는 일은 그리 중요치 않았다. 누군가의 뉘두리를 바다처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던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그렇게 넓고 묵직한 시간이 파도처럼 흘렀다.

성만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쿠앙은 저번 날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대접을 하겠다며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쥐노래미에 갖은 양념을 발라 구울 생각이었다.

“쿠앙, 고래 몸통이 왜 그리 큰지 아나.”

앉아있던 성만이 대뜸 쿠앙의 등 뒤로 말을 꺼냈다. 쿠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다 짊어져서, 전부 다- 짊어져서 커진 기라.”

“.....”

“그래서 고래 몸통이 그리 큰 거다. 그노마 그게 사람하고 닮은 게 참 많다. 수명도 사람하고 꼭 비슷하고.”

※

시간이 지나, 쿠양이 웅도에 온 지 꼭 보름이 되는 새벽이었다.

“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초소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걱정 마이소.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성만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물자보급선의 선장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어제 저녁 도착했어야 할 보급선이 날씨가 좋지 않은 탓에 출항하지 못했고, 오늘 새벽 지금 출발하겠다는 연락을 한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선장은 웅도의 등대가 내년부터 폐쇄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등대장인 성만에게 아직 정식으로 하달된 공문은 없었지만, 말이 넓던 선장이 일찍이 그 소식을 듣고 알린 것이다.

“다 그런 거지, 허허.”

성만은 혼잣말을 하며 선착장으로 향했다. 쿠양과 함께였다. 계

단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에 파도 소리까지 겹쳐졌다. 멀찍이서 박자를 맞추듯 정갈하게 흘러오는 새벽 바다였다.

“쿠앙, 그동안 이국땅에서 잘 못 지냈제? 힘들었을 거다. 앞 밝힐 불 하나 없이.”

성만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빼들었다.

“이거 갖고 가거라. 몸조심 하고.”

아들의 유품인 손전등이었다. 성만은 직접 쿠앙의 손을 펴 그것을 쥐여 주었다.

“나는 이제 그제 필요가 없다. 내도 조만간 떠난다. 거절 말고 갖고 가거라.”

이윽고 보급선이 들어와 선착장에 정박했다. 늘 그랬듯 선장은 보급품을 모두 내려놓고는 성만에게 실없는 얘기를 떠들었다. 그 사이 방파제 부근에 있던 쿠앙은 조심스레 보급선 위로 올라 몸을 숨겼다. 선미 쪽에 있는 화물칸이었다.

잠시 후 배가 다시 출항하자 성만은 평소처럼 보급품을 모노레일로 옮겨 싣고 정상 위로 향했다. 서서히 해가 밝아오는 듯, 등대를 뒤덮고 있던 푸른 어스름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성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으며 등탑 꼭대기로 올라갔다. 어제보단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 안개가 제법 낀 날씨였다. 성만은 물길을 나아가고 있는 보급선을 향해 무신호를 보내고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순간 보급선의 선미 쪽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고래인 듯했다. 그와 함께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다. 선장 몰래 선

미 쪽으로 나온 쿠양이 손전등을 켜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 몸처럼 보이던 것이 수십의 몸으로 나뉘어 가고 있었다. 물 아래서 찬란하게 헤엄치는 것은 수면을 뚫고 짙은 색의 매끈한 몸을 드러냈다. 한 마리씩 창해를 향해 나아가는 상괭이 무리였다.

‘그래 가거라. 뿔뿔이 흩어져 더 푸른 창해로 가거라. 빛도 먹고 그림자도 먹거라. 무엇이든 담을 큰 몸통으로 살거라. 그리하여 큰 고래가 되거라. 가거라… 가거라.’

성만의 외침 같은 무신호 속에, 옹도에는 고래의 헤엄 같은 힘으로 별이 들었다. 늘 빛을 보내기만 하던 등탑엔 반짝이는 것이 스며들어 그 몸이 하얗게, 아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필자가 올리는 말씀〉

큰 사고로 인해 한때 기름이 뒤덮였던 태안 앞바다에 최근 토종 상괭이 100마리가 다시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고 처음 이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국립등대박물관으로의 탐방을 통해 포경과 등대의 역사를 배우고 사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래의 습성을 설명하거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등대원의 생활을 표현한 부분에 있어 최대한 사실 그대로 쓰기 위해 2곳의 사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증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이 소설은 70~80년대에 장생포에서 성행했던 포경의 역사와 현재의 옹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입수(入水)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이유 겹



흑등고래는 모든 고래 가운데 가장 장난을 좋아하고 쾌활한 편이어서,
다른 어떤 고래보다 더 경쾌한 거품과 하얀 물보라를 일으킨다.

— 모비 딕 —

경현은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그려진 채, 읽고 있던 잡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출장지인 뉴기니에 자주 출몰하는 흑등고래에 대한 특집 기사가 흥미를 끌었다. 특히 흑등고래가 어떠한 이기심도 없이, 순전히 이타적인 마음으로 위기에 빠진 다른 고래종이나 바다표범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사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었다. 미애와의 대화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나랑 헤어지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미애야.”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경현씨.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왜곡해서 듣는 거야? 내 말은 그런게 아니잖아. 경현씨가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생활비를 80만원씩 드릴 거라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만큼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을 어떻게 경현씨는 헤어지겠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유명한 사람들 그림 좀 대신 그려주는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 그러지 않고서는 이쪽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게 돈 벌고 우리 부모님 용돈 좀 드리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뻑뻑하게 굴어?”

출국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 줄에 서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경현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늘 이런 식이었다. 대화는 진전이 없었다.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경현은 조금 더 밀어붙였다.

“미애야, 우리 수입 합쳐봐야 세후로 400이고, 너가 지금 나가는 미술학원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대작 작업하는게 단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그치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법률 위반이잖아. 그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더 드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어머니야, 우리 전세자금 마련해 주시려고 집도 작은 곳으로 옮기셨잖아. 우리 전세자금도 마련했잖아.”

수화기 반대편에서 잠시 한숨이 새어나온다. 설득이 되일까?

“..경현씨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경현씨 반대하는 우리 부모님 설득한 것도 나잖아. 우리 부모님도 크진 않지만 전세자금 보태 주시긴 했잖아. 그거 다 경현씨가 1년 동안 일을 쉬어서 그런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집이 예단도 보내는데, 이게 뭐야. 우리 집만 호구 잡힌 거잖아. 매일 부모님 한숨 쉬시는 거 듣는 것도 지친다 정말.”

“돌아가서 얘기하자. 이제 환승해서 다시 비행기 탄다. 로밍 안되니까 괜히 전화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자, 이 문제는.”

경현은 전화를 끊으며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얀색 배경에 하늘색 무늬가 새겨진,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편이었다. 가루다 항공을 보고 있노라니, 웬지 미애와 결혼해도 콩가루 집안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다시 건너면, 새로운 결말을 얻을 수 있을까?

경현은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뉴기니섬 항로표지사업(Aids to Navigation) 타당성조사(Feasiblity Study) 자료를 가방에서 꺼내 펼쳐들었다. 인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출력물이었지만,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종이 끝이 닳아있었다. 경현이 그렇게 자료를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사업이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은 경현의 회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손해만 보기 십상인, 저가에 낙찰받은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설계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말이 거창해서 항로표지 사업이었지, 사실은 오래된 등대를 해체한 이후, 그 자리에 신형 등



대를 건립하고 주변에 부표를 띄우는, 일종의 재건축 사업에 가까웠다.

“그거 알고 있나, 구부장? 인도네시아 공무원들도 뉴기니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총독이 뉴기니에 파견했던 참사관이 현지인들의 든든한 저녁식사 거리가 되고 난 후엔 말야. 하하.”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내고 나서 살아 돌아온다면, 사장님이 저를 뉴기니 식인종들한테 다시 넘겨주시겠죠.”

서울에서 떠나기 전, 사장은 경현의 어깨를 치며 영 썰렁한 농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동남아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스스로를 공구리라고 격의 없이 부르던 호탕한 사장의 뒹뒹이에, 경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열렸다. 경현이 사장을 처음 만난 것은 다니던 대형 건설회사에서 퇴사한 후였다. 유가가 크게 하락해 중동에서 수주해오던 물량이 바닥나자, 회사는 5년 차에 불과했던 경현을 명예퇴직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버티면 어떻게든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경현은 위로금을 1억 정도 더 받고 퇴사하는 길을 택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을 홀어머니 전세자금으로 넣어 두었던 탓에, 당장 미애와 결혼할 자금이 수중에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설마 토목을 전공한 자신이 재취업을 하는데 1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다. 그것 때문에 미애의 성화가 심해질수록, 경현은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런 와중에 사장으로부터 경현에게 연락이 왔다. 그의 회사는 경현이 다니던 대기업의 협력업체였다. 처음에는 마음

에 차지 않았지만, 사장을 직접 만나고 나니 호감이 생겨, 일하게 되었다. 미애와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경현이 일하는 직장을 마음에 차지 않아 했지만, 상관없었다. 경현은 새로운 직장이 마음에 들었다.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나니,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은 작고 아담했다. 동남아가 늘 그렇듯이, 공항주변의 나무들은 홍콩의 아파트단지 마냥 키가 컸다. 이 곳에 올때마다 경현은 마치, 자신이 고난의 행군 때 잘 먹지 못해 키가 못 자란 북한의 꽃제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가하면, 경현을 마중 나온 현지 해양청의 말단 직원은 우거진 수목과 대조적으로 땅딸막한 사내였다.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려는 곳에는 이미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절에 세워진 구식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지난지 오래인데, 뉴기니 지역이 항구로서의 가치를 잃으면서 개보수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요.”

“현지 등대는 그럼 아예 사용이 중단된 건가요? 조사보고서상에는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구요... 현지 아오리카 부족이 임시로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은 말끝을 흐렸다. 경험상, 이런 경우는 보고서에 누락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였다. 생각보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아 보였다. 이윽고 경현과 해양청 직원은 공항 인근에 마련되어 있는 헬리콥터에 몸을 실었다. 현장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차로는

접근이 불가했다. 해안가의 수심이 깊지 않아 직접 배를 대기에는 어려운 터라, 향후 등대 설치 시에도, 인도네시아 육군이 사용하던 시누크 헬기를 임차하여 자재를 날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헬기 아래로 나무들이 난쟁이처럼 작달막했다. 굵이굵이 휘몰아치는 강들 사이로 폭포가 보였다.

“나무가 어머어마하죠? 최근 중앙정부와 전력청이 뉴기니 내륙 상류 지역에 다목적댐을 여럿 발주할 예정이에요. 발전용으로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항구도 현대화해야겠고, 잘 쓰지 않던 항로도 보수하다보니 연안가인 이 지역에 등대를 다시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아까 현지 부족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농사가 주 수입원이라면 굳이 등대를 쓸 것 같진 않고..해산물이 풍부한가 보죠? 저녁에도 고기잡이 배가 들어와야 할 만큼.”

경현은 계속해서 미끼를 던졌지만, 노획한 현지 직원은 남이지 않았다. 듣지 못한 듯 판청을 부리며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헬기는 등대 근처 착륙장에 내렸다. 해안가에 위치한 등대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식민시절에 지어졌다던 등대는 7층 건물 정도의 높이였고, 정문에는 군데 군데 떨어진 금박을 입힌 등대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쓰여 있었다. 등대 신축 부지에는 달랑 등대 건물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머무르며 기거할 수 있는 숙소와 부속건물, 발전설비와 착륙장이 갖추어진 하나의 작은 왕국이

었다. 그리고 그 등대 인근에 아오리카 부족민들이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경현은 현지부족이라기에 몸에 요란한 문신을 두르고 초막집 같은 곳에 살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리는 경현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까르르 웃으며 연신 구식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다 경현이 다가서자 도망가는 찔똥막하고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생각이 한참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니, 여기 와이파이라도 터지나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네요.”

“저기 지붕 위에 집광판 보이시나요?”

경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붕 위로 번쩍거리는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아..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군요.”

“요즘 사람들은 매슬로우 욕구단계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가 기본적인 의식주보다 더 아랫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기 와이파이는 안됩니다. 전기는 들어오겠지만, 저건 아이폰은 아니고, 구식 아이팟이죠. 사진찍고 음악듣는.”

4-50가구 정도가 등대 뒤편으로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수상이 옥 형태로 바닷가 위에 지어진 집들도 간혹 보였지만, 대부분의 가옥들은 내륙지방에 지어져 있었다. 경현은 문득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만든 ‘지옥의 묵시록’ 영화가 떠올랐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

던 때, 인적 드문 섬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 전직 미군 대령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속 배경이 바로 지금 이 마을 같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말린 오징어며 생선들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의 오색기 마냥 집집 마당마다 걸려 나부끼고 있었다는 것 정도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경현의 주위를 서성거렸다. 뉴기니 아이들은 햇볕에 그을려서 그런지, 피부색이 초코칩스 같았다. 아무래도 경현처럼 피부가 하얀 사람은 아이팟 화면 외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도로도 제대로 정비된 게 없는데, 그럼 도대체 저 물자들은 어떻게 날라서 이 곳으로 들어오나요?”

“..근처에 작은 고깃배나 인근 도시로 드나드는 보트 정도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있으니, 아마 그 쪽으로 들어왔겠쎄. 잡은 물고기들을 팔 판로도 필요하니까요.”

다음날 경현은 부스스한 머리로, 등대 옆에 자리잡은 부속건물에서 일어났다. 침대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종종 관리를 했던 것 같았다. 물론, 이불 속에 편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던 팔뚝만한 도마뱀과의 첫 대면에 경현은 기겁하기도 했지만. 도마뱀 역시 놀라 황급하게 창밖으로 사라졌던 것을 생각하면 유쾌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법도 했다.

건물안에는 생각보다 소소한 살림살이 들이 등지를 틀고 있었다. 부르스타와 냄비 뿐만 아니라, 양은 주전자도 있었다. 경현은 공항면세점에서 사온 믹스커피의 포장을 뜯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에어컨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푹푹.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커피를 마시던 경현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책상으로 돌아와 설계 자료를 검토 하려는 데, 다시 노크소리가 들린다. 경현이 가만히 창문에 눈을 대고 밖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다. 경현은 이번에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창문을 커튼으로 가린 채 가만히 문 뒤에 쭈그려 앉았다. 범인은 분명히 현장에 돌아온다. 이번에는 이 장난꾸러기를 명탐정 코난에 빙의되어 잡아주리라. 푹,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경현은 냅다 손잡이를 돌려 벌컥 문을 열었다. 어.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멍한, 대여섯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너댓명이 경현과 눈이 마주쳤다. 요놈! 경현이 짐짓 무서운 척, 손을 올리며 혼내려는 시늉을 하자, 아이들은 혼비백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단 한 명, 다리를 절룩거리던 아이만 뒤쳐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현은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얼굴에 가득했던 장난기는 어디로 갔는지, 무서움만 잔뜩 남았다. 경현은 아이를 안심시키고는, 얼른 건물 안에서 초콜릿 몇 개와 스케치북, 연필을 가지고 나왔다. 초콜릿을 받아먹으면서 뻔히 경현을 쳐다보는 아이에게, 경현은 등대 전경을 스케치해서 주었다.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서운 사람도, 낯선 타인도 아니라는 것, 그저 등대를 신축하기 위해 잠시 찾아온 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경현이 찢어준 스케치북을 손에 쥐고서는 뒤를 한번 돌아본 후, 쏜살같이 도망갔다. 문득 경현은 미애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관계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

면, 우리도 저런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겠지.

경현이 몇 가지 짐을 챙겨 문을 나서려는 찰나, 열두서너살은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문 앞에 얼쩡거렸다. 소식을 전해 듣고 초코렛이라도 더 달라고 온 건지 싶어 짐을 들고 나와보니, 녀석은 서툰 영어로 경현에게 꾸벅 절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죄송, 제 동생이었습니다, 단지 장난이었어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피식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경현은 뉴기니에도 예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초코렛을 주었던 아이의 형인 모양이었다. 경현은 형을 잘 달래 돌려보낸 이후,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을 뚫기 위해 마을을 잠시 둘러보았다. 고작 등대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무슨 조사할 것이 그렇게 많으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암반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제원에 맞춘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할 수 없었다. 암반이 너무 무르면 그만큼 기반작업을 많이 해야했고, 내진설계를 하는데도 품이 많이 들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는 시멘트와 벽돌로 지어올린 고전적인 석조건축 양식이었다. 식민지배 시절에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신의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등대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등대 바로 아래 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반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지반의 경도에 따라 철근을 어느 정도로 박아넣어야 최적화될지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현은 뉴기니지역이 지진이 잦은 이른바 ‘불의 고

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위용 찬란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역시, 수많은 전쟁을 버텼음에도 결국은 지진에 무너져내려 버리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보면 내진설계라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된 것은 인류에게 축복이었다. 경현이 학부시절 제일 좋아했던 과목도 내진설계의 이해였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릴 줄 아는 벼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작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힘겨웠던 경현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는 설계의 이념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었다.

조금 전 장난을 치다 꾸지람을 들은 아이들은, 어느새 등대로 돌아와 자기들끼리 놀고있었다. 아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놀이인 듯 했다. 눈을 감고 등대 벽에 대고 있는 팔 속으로 얼굴을 파묻어 깜깜한 어둠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환한 빛 속에서, 자신에게 돌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술래의 운명. 그건 마치 고장난 등대에 의지해 집으로 돌아오는 뱃사람 같았다. 등대에서 하기에 딱 맞는 놀이 같았다. 아이들은 시추기계를 들고 걸어가는 경현을 발견하고는, 그래도 이제 안면을 한번 튼 사이라는 듯이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경현도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마을은 한산했다. 성인 남자들은 어디 뱃일이라도 하러 나갔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흘끔흘끔 걸눈질로 쳐다보았다.

다만 이상한 것이 있었다면, 마을회관처럼 생긴 커다란 건물 앞에, 피부가 조금 더 하얗고 건장한 남자 너댓 명이 원탁의자에 둘러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마치 검재정선의 산수화 속에서 고흐가 그린 인물들이 모자를 눌러쓰고 낮잠을 자는 모습처럼, 경현에게 위화감을 주었다. 남자들은 담배를 빼금빼금 피고, 맥주를 한 잔씩 걸치며 호탕하게 웃어제꼈다. 얼굴에는 하나씩 큼지막한 흉터를 가지고 있어,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경현은 서둘러 마을회관 인근에서 빠져나왔다.

경현은 우선 등대 근처에 시추공을 뚫었다. 드릴이 우웅, 디젤엔진의 둔탁한 저음소리와 함께 땅을 헤집고 들어갔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경현은 사랑니를 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랑니가 기울어져 난 탓에 바로 발치를 할 수가 없어서, 소형드릴로 사랑니를 깨 부순 후 조각조각난 이빨을 펜치로 뽑았던 적이 있다.

드릴은 타는 냄새와 함께 사랑니를 산산조각냈다. 자기 이빨이 아작나는 것을 결눈질로 훑쳐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디스크로 고생하던 치과의사는 1시간이 넘도록 단단하게 뿌리내린 조각들을 뽑아내지 못했고, 애드벌룬에 헬륨가스 넣듯이 경현의 턱은 한동안 부었었다. 시추도 그런 식이었다. 흙과 자갈이 뭉쳐있는 지층은 쉽게 뚫고 지나갔지만, 암반이 단단할수록 요란하게 몸을 떨며 박혀들어갔다.

한참 시추공을 운전하고 있으니,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 조금 전 찾아왔던 소년과 함께 경현을 찾아왔다. 촌장 정도 되는 모양이

었다.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노인은 이 근처에 뱀을 비롯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한다며, 마을과 등대를 벗어나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징어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낚시배들을 위해 등대를 밤에도 켜 줄 수 있을지 물었다. 아니, 적어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였다고 경현은 받아들였다.

“여기, 벗어나면 위험해요. 촌장님, 이야기 진짜예요. 뱀 많아요. 그리고, 밤에, 등대 좀 켜주세요. 우리 배, 위해서.”

서툰 영어로 아이는 촌장의 말을 통역해주었다. 경현은 아이에게 영어는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파보아야 할 시추공들이 많이 남아있어 다음에 묻기로 했다.

아이는 촌장의 마지막 말을 전해 주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마을 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만 하고 가세요. 안녕히.”

아이가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등대 바로 아래 지반은 단단한 편이었다. 경현은 그래도 혹시 인접지반 중에 연약지반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등대 뒤편의 공터에서 시추공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표면을 2m쯤 파내려가자, 갑자기 시추공의 드릴이 쭈욱하고 폭 빠지는 것 아닌가.

경현이 드릴을 급히 꺼내 드릴 안쪽에 채굴된 지층을 조사해보

니, 암반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음식물쓰레기처럼 악취가 나는 유기물질이 대거 발견되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이 공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한참을 흠과 자갈을 쌓아서 덮은 건가?

아니, 그렇지 않다. 경현이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며 살펴본 바로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음식물들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섞여서 마을에서 먼 숲속에 묻었다. 마을과 거의 붙어있는 등대 뒤편의 공터에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채굴된 지층 속에서 유기물질과 함께 발견된 것은 바로, 이빨이었다.

경현은 몸을 떨었다. 날짐승의 이빨인가? 아니, 아니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사장이 실없이 던졌던 농담이 떠올랐다. 식인종인가? 아니면, 살인사건?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빨래를 하던 어머니는 장난을 치는 아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젊은 새댁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얼려주고 있었다. 아주 평화로운 어촌의 풍경이었다. 경현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더 짜보았다. 여기는 사법권이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판결에 따라 처벌한 것 아닐까..? 딱히 무덤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였다.

시추작업을 마치고, 경현은 부속건물로 서둘러 돌아왔다. 공터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내내, 주위를 지나가던 아낙들의 수군수군거리

는 시선이 등 뒤로 파갑게 느껴졌다. 분명 여기에 무언가 있었다.

하지만 당장 경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마도 어눌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열두살짜리 꼬마 한명인 듯 한데, 그 아이가 곧이 곧대로 이야기해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 섬에서, 해양청 관계자는 2주 후에나 올 텐데, 경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심란한 마음에 설계도면을 뒤적거리다 깜빡 잠이 든 경현이 깬 것은, 자정을 한참 지난 시간이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환호, 손전등에서 비추는 빛이 등대의 환한 빛과 함께 부속건물의 창에 아른거렸다. 아마 마을 사람들 중 몇이 등대에 올라가 불을 켜 모양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어보니, 어젯밤에 보였던 작은 고깃배보다 더 큰 어선 몇 척이 시야에 들어왔다. 고기잡이가 끝나고, 출항했던 배들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어선 크기는 마을 규모에 맞지 않게 상당히 컸다.

‘오징어잡이는 보통 새벽까지 하던데, 여기는 일이 좀 일찍 끝나는가 보군.’

한번 잠이 깨자,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한동안 떠나갔던 불청객이 예고 없이 돌아온 듯 했다. 지긋지긋한 불면증의 방문을 받은 김에, 시추결과라도 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경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의 불을 켰다.

딸깍.

불이 켜지고 2,3초나 지났을까. 소란스러웠던 야외가 일순 고요

하게 멈춰들었다.

경현은 불을 끈 뒤, 다시금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살며시 커튼을 제껴보았다. 어둠속에, 희번덕거리는 수백 개의 눈이 경현의 숙소를 향해 있었다.

헉

경현은 행여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촌락 주민들에게 들켰을 까봐 얼른 숨기며 불을 껐다. 분명 이들은 경현을 주시하고 있었다. 왜 경현을 경계하는지, 그것이 단순히 외부인에 대한 배타심의 발로인 것인지 아니면 감추어야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 경현은 창 밑에서 벽에 귀를 대고, 바깥의 동정을 살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왁자지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떠들기 시작했다.

경현은 갑자기 미애가 보고 싶어졌다. 모국어로 씬 없이 떠들어 대던 때가 그리워졌다. 물론 미애와는 싸우는 일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을 들먹거리며 요구조건을 들이 밀 때는, 이 아이가 자신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은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데릴사위로 데려가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장애물, 결혼이라는 현실을 제외하고 보면 경현은 미애와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다.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건축물을 볼 때도 경현이 구조, 강성, 소재를 위주로 보았다면 미애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논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둘은 둘 만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호보완이 되는 것



같이 마냥 즐거웠었다. 미애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하청받아 대리로 그리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지친 미애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번 발을 담그기 시작하자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한 명, 두 명, 작업의뢰가 들어오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나서, 사실 미애도 한번은 그만 둘 생각에 개점휴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다.

‘너,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데, 여기서 그만두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이쪽 업계에서 계속 발 붙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애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

하는 수밖에 없었다. 경현은 미애가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재능을 소진하는 것이 영 못마땅해 많이 다투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경현은 해외근무를 자청할 수 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면, 미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리 작업과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집에 돌아간 듯 했다. 집들은 불이 꺼졌고, 달 빛 아래 마을은 고즈넉했다. 경현은 불을 켜지 않고 살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왔다. 주머니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소형 GPS 송수신기를 쑤셔넣었다.

절반은 호기심이었고, 나머지는 위기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등대 뒤편에 묻혀있는 시체는 무엇이며, 늦은 시간에 들어온 저 큰 어선은 무엇일까. 경현은 등대에서 해변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선박은 훨씬 컸다. 평범한 어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통통배 고깃배는 아니었다. 작은 부두에 사다리는 모두 치워져 있어서, 어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었다. 찬찬히 걸음을 옮기던 경현의 눈에, 손질한 생선의 지느러미들이 부두 한 켠에 차곡 차곡 쌓여 있는 것이 들어왔다. 경현은 발을 멈추고 한참을 굳은 채 자리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지느러미는 경현의 키 만큼이나 컸다.

경현은 해체된 사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흑등고래였다. 경현이 뉴기니에 오기전 잡지에서 보았던 그 모

습. 쾌활하고 착하고, 장난끼 많은 녀석.

딱! 그리고 그 순간, 경현은 정신을 잃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처럼, 시야가 킁킁해졌다. 불의의 습격에 뒤통수를 강타당한 경현은 허를 찔린 술래처럼 앞으로 고꾸라졌다.

경현이 눈을 뜨자, 처음으로 느껴진 것은 입 안에서의 이물감이었다. 무언가 말을 하기 위해 우물우물거리려 보았지만, 입을 채운 손수건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리 역시 뭉뚱 묶여있었다. 가장 나중에 돌아온 것은 시각이었다. 눈을 떴음에도, 여전히 눈이 뜨이지 않았다. 아인슈타인 시절까지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암흑물질로 가득 차있다고 믿었었다. 지금 이 곳이 그런 행국이었다.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차있었다. 다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경현이 지금 있는 곳이 흔들린다는 것. 일정한 간격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경현을 납치한 이들은 분명 바다에 떠 있는 배 위로 경현을 끌고 온 것이었을 것이다.

별걱.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등대에서 비추이는 빛이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세상이 다시 경현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발걸음 소리로 비추어 보아 네 명 정도가 들어 온 것 같았다.

“우리 배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교적 세련된 영어가 들려왔다. 아침에 만났던 아이는 아니었다. 더 굵고 낮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목소리였다.

“당신들은 누구죠?”

“묻는 말에 먼저 답해.”

“저는 등대를 수리하기 위해 온 엔지니어입니다. 다른 것을 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주로 잡는 어종을 확인하면 향로 운항 용 말고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보조 등을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시 산책 나왔던 것 뿐입니다.”

경현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럴듯한 말을 섞어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경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웃기지 마, 정부가 저 등대를 해체한 이후에 다시 지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마을을 두리번거리고, 배에까지 올라온 거냐고.”

“아니, 그건...”

“그리고, 등대 뒤 공터는 왜 파헤친거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 줄 알고? 똑바로 말해. 너는 중앙 경찰청에서 파견된 요원인가?”

경현은 머리에 차가운 쇠덩이가 닿는 것을 느꼈다. 권총이었다.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던 경현은 이것이 경찰들이 쓰는 피스톨 형태의 리볼버가 아니라, 군인이나 마피아가 사용하는 콜트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어촌 주민들이 아니다. 생각해야한다. 이들은 누구일까. 나를 왜 잡아온 걸까.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던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지느러미였다. 지느러미, 지느러미.. 외부인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필시 흑등고래의 지느러미였다. 포경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산업이었다. 흑등

고래들은 산란기에 연해지방으로 올라와 새끼를 낳곤 한다는 이야기를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이 정부 몰래 고래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켰다고 생각해서 나를 몰아세우는 것임에 틀림없다. 경현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정말입니다. 나는 정부에서 보낸 정보원이나 요원 같은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등대를 건설하는 엔지니어일 뿐이라구요. 큰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그냥 엔지니어인가 보군. 그렇다면 죽어도 큰 문제될 것이 없겠네.”

철컹.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잠깐만요. 아무리 제가 요원 같은 게 아니더라도, 파견된 엔지니어가 살해된 채 발견된다면 여러분도 무사하지 못 할 겁니다. 제가 여기 파견되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저를 고용한 고용주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실종되기라도 한다면, 경찰이 수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지자 말이 술술 나왔다. 등대 빛이 다시 한번 실내를 비추이자, 경현의 머리에 총을 겨눈 이의 얼굴이 비춰졌다. 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낮에 마을을 둘러볼 때, 마을 회관 앞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일행 중 한명이었다. 왜 일을 하러 가지 않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의아했었던 그 무리.

“이봐 이봐, 사람이 죽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 너

무 성실한 엔지니어가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산을 오르다 실족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체는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 곳에 묻힐 수도 있지.”

“등대 뒤 공터에 시체를 묻은 것도 당신들입니까?”

“질문은 내가 하는 거지. 너는 답만 하면 돼.”

“왜지? 그 사람은 왜 죽은 거지? 당신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마을 사람들을 죽여서 공터에 파묻어야만 할 이유라는 게 있었습니까?”

경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상대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협상이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궁금한 것도 많군. 이봐,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 하나 둘 죽어서 우리를 더 무서워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지.”

“마을 사람들을 수족으로 부린다는 건가? 마치 식민지처럼? 고래 사냥도 당신들이 시킨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

“푼린 입이라고 말이 심하군. 그들은 원래 우리가 이 마을로 건너 오기 이전에도 고래잡이를 했어. 우린 그들에게 더 큰 배, 더 좋은 장비를 제공했다고. 그들도 우리를 싫어하기만 하는 게 아냐. 우린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만 몇 명 본보기로 해치운 것 뿐이야. 우리라고 그들을 싫어할 이유가 딱히 있겠나.”

경현은 머리가 아파왔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목숨도 어렵지 않게 빼앗는 악당들이었다. 얼마 전 보았던 뉴스가 떠올랐다. 아마

이들은 뉴기니 섬에 잠입한 필리핀 근방의 IS일당일 확률도 있었다. 현지에서 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돈도 벌고, 모병도 하고 있겠지. 여기서 괜히 강경하게 나가보았자, 경현의 목숨은 이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터였다. 경현은 미애와의 말다툼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협상전략을 써보기로 했다.

“어차피 저 하나 죽여 봤자 당신들은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저를 찾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없어도, 제 후임들이 여기로 다시 발령받아 등대를 수리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구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일이 복잡해지면 당신들은 한동안 고래잡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저와 손을 잡으시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머물면서 제 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 후임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라도 하면, 그건 더 골치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입에 모터가 달린 듯, 위기상황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 경현은 스스로도 신기했다. 이야기를 한참 들은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략이 먹힌 듯했다.

“그래..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지? 마을을 떠나자마자 당국에 신고하기라도 하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해양청 직원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손길이 상당히 먼 곳까지 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탄 마음을 먹으면 당신들의 손 안에서 어떻게 될지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현의 말에 사내는 크게 웃었다.

“하하, 이 친구, 아주 머리 돌아가는 것도 제법이구만 그래. 좋아 좋아. 자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 어이, 이봐. 데려오도록 해.”

사내는 부하로 보이는 이에게 명령했다.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어이 친구, 이렇게 하도록 하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자네를 고이 보내주도록 하겠어.”

경현은 마음이 놓였다. 자신의 말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았다. 사내는 머리를 저누고 있던 권총을 거둔 후, 부하들로 하여금 경현을 일으켜 세우게 한 뒤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눈이 부셨다. 밖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 나오니, 상당히 큰 어선의 한 복판으로 등대에서 나온 빛이 직사로 내리쬘고 있었다. 오래된 배트맨 영화에서, 고담시티의 어두운 하늘을 비추던 배트맨 모양의 영사등처럼. 등대는 원래 이런 식으로 특정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추이지 않는다. 등대 역시 이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들은 아마 등대의 등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갈아 끼 것 같았다.

“이봐, 자네가 우리들이랑 손을 잡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려면 자네가 먼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사내의 부하들이 어깨에 AK-47소총을 걸쳐 맨 채로, 양 팔을 잡고 한 아이를 끌고 와, 선창 위에 내동댕이쳤다. 절뚝거리면서 끌려온 아이는 힘없이 쓰러졌다. 경현은 누구인가 싶어 아직 부신 눈을

팔로 비비면서 다시 쳐다보았다. 꼬마 아이. 아까 자신의 숙소 앞에서 초인종을 연신 누르며 장난을 치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새파란 얼굴로 이를 딱딱 떼고 있었다.

“이 녀석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을 쳤어. 이쪽 동네 사정을 지방정부에게라도 이야기하려나 보지. 멍청한 녀석. 우리도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자네가 대신 처리해주면 확실히 우리 편이 되었다고 인정해주지.”

녀석들은 여전히 총구를 경현에게 겨누채, 손에 묶어두었던 매듭을 마저 풀어주었다. 아, 이것은 어릴 적 피터팬이나 나이 들어서 본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다. 녀석들은 기다란 널빤지를 바다 쪽으로 향하게 난간에 걸어둔 뒤, 그 위에 아이가 올라타 서게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경현에게 이 아이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도록 주문했다. 다른 사내들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었다.

함정에 빠진 거구나, 경현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경현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것도, 등대의 불빛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던 것도,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였다. 녀석들은 경현을 협박할만한 물증을 잡으려는 생각이었다. 행여 경현이 이곳을 떠난 이후 다른 마음을 먹기라도 한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살인죄로 고발하여 발을 묶어둘 생각인 것이었다.

미애 생각이 났다. 아마 미애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려봤

있던 것이겠지. 여기서 저 아이를 밀어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자기가 했던 일을 합리화하는 말들을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바보같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코앞에 두고서야 미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다니.

경현은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마음을 독하게 먹는 수밖에 없었다.

경현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경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등대 그림이 그려진 그림. 경현이 그려주었던 그림이었다.

젠장.

경현은 아이에게 손을 대었다. 바르르 떠는 아이의 떨림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경현은, 아이를 온 몸으로 감싸 안은 채, 바다 한 가운데로 함께 뛰어들었다.

총알이, 경현의 뺨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놀란 이들의 고함 소리, 욕설소리, 총소리가 들렸다.

꿈을 꾸는 것일까. 경현은 어렴풋이, 물 속 깊은 곳에서 흑등고래 한 마리가 지느러미로 손짓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흑등고래는 몸

을 뒤집고 지느러미를 흔들고 있었다. 이 밑은 너무 깊어, 나는 갈 수 있지만 너가 가진 어려운 곳이야. 흑등고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는 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인 것 같았다. 경현은 다시 눈을 감았다. 조용히 몸이 가라앉고 있었다.

“아니, 어찌자고 그렇게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연신 인공호흡을 하던 인도네시아 경찰청 소속의 구급관들은, 경현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대뜸 물어보았다.

살았구나.

경현은, 쿨럭 거리며 한참 물을 뱉어낸 이후에야 찬찬히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이 역시 한쪽 편에서 물을 뱉고 있었다. 모두 살았다.

“그런데, GPS수신기를 들고 올 생각은 어떻게 한 거였어요? 거기 키면 우리가 확인할 거라는 거는 또 어떻게 알고?”

구급관 옆에 있었던 경찰청 요원이 물어왔다.

사실, 경현도 이렇게 빨리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경비정을 파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숙소에서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몰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GPS 장비가, 이렇게 목숨을 구해 주는 역할을 할 줄이야.

“쿨럭, 우선 선박용 GPS 장비를 켜면, VTS시스템을 맡고 있는 해양청 쪽에서 저를 발견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죠. 영 이상한 곳에서 갑자기 GPS가 감지될 테니까. 지난번에 VTS시스템 개선작업

을 수주해서 업그레이드 했던 곳도 저희 업체였으니까, 이쪽 사정은 알고 있었거든요. 상황실에도 몇 번 가 봤었고.”

듣고 있던 경찰청 요원은 거 참 대단하구만,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GPS만으로 자신을 바로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던 자신을 어떻게 발견한 걸까.

“운이 좋았어요. 그 곳을 지나가던 고래 무리가 당신과 저 아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더군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보았던 흑등고래가 꿈이 아니었구나.

“당신을 납치한 것은, IS 분파가 맞습니다. 해양청과는 별개로, 우리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그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었지요. 최근 뉴기니 인근으로 이들이 잠입한 것 같다는 첩보가 있어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당신에게 걸려버렸군요.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들은 여기서 흑등고래를 사냥해 얻은 수익으로 군자금 마련한 이후, 본토에 대한 테러를 획책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희 대테러부대가 급파되었으니, 큰 문제 없이 녀석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현은 여전히 어안이 병병했다. 테러니, 고래니, 하는 말들이 귓가로 흘러지나갔다. 사실, 경현은 아이가 종이 그림을 꺼내기 전까지, 아이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릴 생각이었다. 그것만이 경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보였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그려주었던 등대그림을 본 순간, 차마 그 아이를 밀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마치 경현의 자식인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없었다. 어쩌면, 잡지에서 읽었던 흑등고래 이야기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고래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경현은, 돌아가는 길에 미애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미애가 대리로 작품을 그리지 않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질책하는 말투로 몰아세우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말을 알지 못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미애와 함께 결혼이라는 바다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현 뒤로 등대의 불빛이 환하게 비추었다. 더 이상 눈이 부시지 않았다. 경현의 마음도 이제야 밝아지기 시작했다.





수필



형의 그림자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이성은



올 해도 어김없이 형의 그림자를 찾기 위해 남해바다를 찾았다. 매년 찾는 남해바다이지만 올 해는 아무래도 형의 그림자를 찾을 것만 같다. 형이 바다로 떠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형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소식조차 없다. 매년 마지막이라 여기며 찾는 남해바다, 올 해가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노환과 오랜 숙환으로 인해 어머니의 거동이 이젠 쉽지 않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20년 전 떠난 형의 모습이 오버랩 되곤 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형을 따라 남해바다로 바다낚시를 떠났다.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던 내게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형은 바다사나이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노라 재재거리며 나와 친구들을 데리고 남해바다로 바다낚시를 떠난 것이었다. 낚은 트럭을 렌트하여 남해바다를 향하는 동안 형은 친구들에게 해병대 경험담을 구구절절 늘어 놓았다. 친구들은 형의 경험담에 귀 기울였지만, 내겐 그저 흰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사실 난 해병대에 가고 싶지 않았다.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남해바다의 모습은 심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윤슬이 바다 위를 금빛으로 수놓는 장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인근 어촌을 찾아 우리를 돌섬으로 데려다줄 통통배를 구하던 중 마침 마을회관 앞에서 이마가 넓테데한 이장님과 마주쳤다. 바다낚시를 가겠다는 형의 말에 이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자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단 소식 못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들, 들었다고? 그런데도 바다낚시를 가겠단 말이야?”

이장님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장님! 이래봬도 제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입니다. 해병대가 그깟 태풍을 무서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형은 득의양양한 모습으로 목에 힘주어 말했다. 이장님은 당신의 큰 아들 역시 해병대 복무 중이라는 말과 함께 형에게 정말 괜찮겠냐고 수차례 되물었다. 사실 짐을 챙겨 집을 나설 때에도 어머니 일기예보를 통해 태풍 소식을 전해 듣고 형에게 바다낚시 가는 걸 만

류 하셨지만, 소싯적부터 고집불통이었던 형의 뜻을 꺾지 못했다.

돌섬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금방이라도 거대한 너울이 덮쳐올 것만 같았다. 돌섬은 우리 집 마당보다도 적어 보였다. 형의 낚시 실력은 환상적이었다. 미끼를 끼운 낚시찌를 바다에 던지는 족족 바닷고기를 잡아 올렸다. 심지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 들어 능수능란하게 수영실력을 뽐내기도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돌섬에도 어둠이 찾아들었다. 어둠이 찾아들자 잠잠했던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겁먹은 나와는 달리 형은 전혀 겁내지 않았다. 오후 내내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친구들도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자 겁먹은 표정으로 고시랑거렸다. 형이 끓인 매운탕으로 저녁 끼니를 때우고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비바람 때문에 도통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또한 집 채 만한 파도가 돌섬을 덮쳐 올 때면 온몸에 털들이 쭈뼛거릴 정도였다. 형 역시 저어한 표정으로 멀거니 돌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형은 아침까지만 잘 버티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나와 친구들을 다독였다.

자정을 넘자 바람과 파도는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파도가 돌섬을 내리칠 때면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 텐트까지 밀려들었다. 급기야 텐트가 바람에 날려 칠혹 같은 바다 속으로 밀려들어 갔다. 우리는 돌섬 중앙 움푹 파인 곳에 모여 앉아 비를 맞으며 하루속히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가져온 주전부리마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바람에 배를 주릴 수밖에 없었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세상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만 같았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비바람과, 3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쳤다. 뿐만 아니라 돌섬이 언제 바다 속에 수장될지 모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날이 밝아 약속한 시각이 되었는데도 통통배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 형을 원망했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형과 친구들, 그리고 내게 통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형, 저길 봐! 혹시 통통배 아냐?”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정말 작은 통통배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돌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함성을 내지르며 통통배를 향해 손을 미친 듯이 흔들어 댔다. 통통배가 어렵사리 돌섬 근처까지 도착했지만, 워낙 파도가 거세 접안할 수 없었다. 이장님은 돌섬 주위를 뱅뱅 돌며 접안할 위치를 모색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잘못 접안했다간 통통배가 난파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 때 형이 바다에 뛰어 들었다. 수영실력이 뛰어난 형도 파도 속에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은 혼신의 힘을 다해 친구들을 하나하나 통통배까지 이동시켰다. 마지막으로 형은 숨을 헐떡이며 날 어렵사리 통통배까지 이동시켜 주었다. 통통배에 올라 형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엄청난 파도가 밀려들었다. 이장님은 어떻게든 형을 뒤따라 가려했지만, 통통배 역시 파도에 밀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장님은 밧줄을 꺼내 들고

형을 향해 던졌다. 형은 사력을 다해 밧줄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 버려 점점 파도에 밀려났다.

“형! 정신 차리고 밧줄을 잡아! 어서 밧줄을 잡으라고!”

형을 향해 소리쳤지만, 형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바다 속으로 빠져 들었다. 친구들과 이장님 역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만 돌아가야겠다.”

“지, 지금 뭐라 하셨나요? 돌아가다뇨? 형을 놓고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장님을 향해 소리쳤다.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어! 통통배가 뒤집어지더라도 하면 우리 모두 이곳에 수장되고 말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형을 놓고 갈 수가 있어요?”

난 눈물을 쏟으며 형의 모습을 찾았다. 그런데 형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난 울부짖으며 형을 불렀다. 그런데도 형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장님은 뱃머리를 돌려 물으로 향했다. 위태롭게 돌섬을 벗어나는 통통배 위에서 난 형을 집어 삼켜 버린 바다를 향해 “형! 형! 형!”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지짐거리던 비가 멈추더니 늦은 오후에서야 구름사이로 별이 드러났다. 근 3시간가량을 망루에 앉아 미동 없이 남해바다를 바라보며 형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시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자고 나직이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장님이라도 뵙고 가시게요.”

내 말에 어머니 대답대신 고개를 주억거렸다. 어머니가 일어서서 어칠비칠 차로 이동했다. 어머니가 뒷좌석에 오르자 문을 닫고 나 역시 운전석에 올라 해안가 마을로 향했다. 석양빛으로 물들어 가는 남해바다의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해안가 마을에 도착하여 보니 작년까지 보지 못했던 하얀 등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도 형의 실종선고 후 형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씻김굿을 했던 그 자리에 하얀 등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어머니 한동안 등대 주변을 배회하며 형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난 이장님 집으로 향하던 중 마을 회관 앞에서 뜻밖에 소식을 접했다. 이장님이 올 봄에 숙환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형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며 형의 주검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장님의 별세 소식은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에게 돌아와 이장님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역시 안타까워하며 이장님의 명복을 빌어 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 난 어머니를 모시고 등대에 올랐다. 등대에 올라서서 오랫동안 남해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 가는 석양 위로 형의 그림자가 언뜻 보이는 듯했다. 금방이라도 형이 내게 손을 흔들며 달려올 것만 같았다. 형은 바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만약 형이 일말이라도 바다

를 두려워했더라면 그리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바다를 어머니의 품처럼 사랑했던 형은 이젠 절대적으로 불가촉한 거리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비록 형이 불가촉한 거리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고 하여도 내가 형을 마음에서 놓아주지 않는 이상 언제나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터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을 이끌어 주는 등대가 되어 날 지켜볼 것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내 뺨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래도 형이 다녀간 모양이었다. 나도 모르게 ‘형, 형, 형!’ 이라고 읊조렸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내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노를 저으며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박 하 성



한바탕 흐드러진 춤사위다. 은빛 달 비늘이 공중에서 난무한다. 하얀 벚꽃 이파리가紛紛히 흩날린다. 너른 바다에서 마지막 유영遊泳을 끝낸 멸치 떼의 비장하고 화려한 군무다. 물속에선 날렵했던 저들의 몸뚱이가 이젠 몇 바퀴 공중제비를 넘고 바닥에 속절없이 떨어진다.

저들도 얼마 전까지는 푸른 꿈을 꾸었을 것이다. 바다의 속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푸른 바다를 맘껏 누리는 꿈이 아니었을까. 비록 2년을 넘지 못하는 짧은 삶이지만 파도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들의 조상이 남긴 연대기年代記를 읽고 싶지 않았을까. 갈매기가 물어다주는 육지 소식도 궁금했을 법한데 이제는 모든 걸 다 접고 달 비늘로 꽃 이파리로 사부자기 드러누웠다.

‘어야디아 하나 둘, 어야디아 하나 둘’. 비린 멸치 비늘을 흠뻑 뒤집어쓴 선원들이 유자망 그물코에 촌촌히 걸린 멸치를 털고 있다. 그물을 잡은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높이 들어 올렸다 내린다. 위로 올린 손을 힘차고 재빠르게 아래로 뿌리며 그물을 털고, 다음에는 다른 손을 올렸다가 내리친다. 이런 동작을 실새없이 되풀이하는데도 호흡이 척척 들어맞는다. 나란히 선 여러 사람의 손동작이 일치해야 되는 고난도 작업이다. 특이한 구령과 일사불란한 동작이 마치 수천 년 전 고대 종교 의식을 치르는 듯하다.

기장군 대변항은 멸치 주산지다. 싱싱한 멸치회, 고소한 멸치구이, 얼큰 걸쭉한 멸치찌개, 곰삭은 멸치젓갈은 별미 중의 별미다. 봄 멸치는 지방질이 풍부하고 살이 연하다. 그래서 해마다 4월에 멸치 축제가 열린다. 각종 멸치 요리, 멸치털이, 노 젓기 체험, 다양한 행사로 유명한 기장 지역의 대표 축제다.

우리 가족은 갯마을에 살았다. 아버지는 노를 저어 움직이는 작은 무동력 전마선의 선주였다. 배 이름은 제비처럼 빠르게 나아가라는 뜻의 ‘제비호’였다.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가끔 아버지와 멸치잡이를 하러 밤바다에 나갔다. 그 당시 가정 형편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이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뱃일을 미리 배우는 것도 필요했다. 멸치잡이는 대개 네댓 명 정도가 팀을 이뤘다. 우리 배는 네 명이 탔는데 아버지는 노잡이, 나는 뱃머리잡이, 한 선원은 가스불잡이, 다른 사람은 그물잡이였다.

멸치잡이에는 불빛을 사용한다. 좁은 포구 안에서 여러 배가 조

업하므로 불빛이 밝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 모든 배들이 카바이드 가스를 사용했다. 카바이드가 보급되기 전에는 형광을 등글게 문쳐 철사로 감고 기름에 적신 햇불을 사용했다. 기름이 없는 배는 송진이 많이 엉겨 있는 소나무의 옹이에 불을 붙인 관솔불을 사용했다.

불빛을 보고 먼저 플랑크톤이 몰려온다. 이 플랑크톤을 노리고 멸치 떼가 달려드는 것이다. 이때 노를 젓는 사람은 방향과 속도를 알맞게 조절해야한다. 너무 느리게 또는 너무 빠르게 배를 몰거나 시간을 오래 끌면 멸치 떼가 흩어져버린다. 멸치가 충분히 모이면 갯바위 지형이 V자나 U자형으로 움푹 팬 갯창의 왼쪽에 뱃머리를 빠르게 붙인다.

내 승선 위치는 맨 앞 이물이었다. 배가 갯바위에 접근하면 힘껏 샷대를 내밀어 배를 멈추고 얼른 바위로 뛰어 내려 뱃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임무였다. 선원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밭을 쾡쾡 구르며 굵은 막대기로 뱃전을 세게 두드린다. 놀란 멸치 떼는 수면 위로 어지럽게 뛰어 오르거나 우왕좌왕한다. 뜰그물채를 잡은 사람이 재빨리 그물을 비스듬히 물속에 넣어 멸치를 떠올리기를 되풀이한다.

그 동안 아버지는 배 고물이 틀어지지 않도록 노질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다. 멸치가 많이 잡히면 모두 흐뭇하고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때는 나도 재미있고 신나서 힘든 줄도 몰랐다. 그러나 파도가 일렁일 때는 뱃머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힘들었다.

그날도 나는 뱃머리잡이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약간 높았으나 조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몇 번은 작업이 순조로웠지만 사고가 생겼다. 나는 갯바위로 향하는 배를 멈추려고 샷대를 내밀어 막았으나 미끄러져 빗나가버렸다. 얼른 샷대를 거두고 다시 시도했는데 이미 늦었다. 관성을 못 이긴 배는 이물로 바위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나는 배에서 떨어졌다. 거친 갯바위 위에 떨어졌으면 크게 다칠 뻔 했다. 다행히 수심이 얇은 바다 쪽이어서 나는 팔다리에 약간의 타박상과 찰과상만 입었다.

그날 조업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 뒤에 아버지는 나를 멸치잡이 배에 태우지 않았고, 얼마 뒤 멸치잡이철도 끝났다. 다음 해 정월대보름 사흘 뒤 아버지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주인 잃은 '제비호'는 얼마동안 물에 올라와 있다가 동네사람에게 팔려나갔다.

대변항 방과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낮에 곤히 잠들어 있던 등대가 깨어나서 환하게 번쩍이고 있다. 언뜻 바다는 사방팔방 길인 것 같고, 눈으로 보이는 뱃길이 없는 것 같지만 정해진 향로가 있다.

그 향로의 이정표가 바로 등대다. 칠혹 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불은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고, 미래의 든든한 안내자다. 짙은 안개가 끼어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젓대소리 같은 무적霧笛을 울려서 등대의 위치를 알린다.

나는 등대를 닦고 싶다. 하지만 마음뿐이고 부질없는 욕심인 줄 안다. 내 그릇은 너무 작고 보잘 것 없다. 나는 도저히 그럴만한 위

인이 못된다. 세상에는 등대처럼 어두운 길을 밝히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과 가치가 많을 것이다. 그 등대 같은 사람을, 등대 같은 어떤 가치를 믿고 지키고 돌보는 등대지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불을 켜 배들이 대변향 밤바다에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 어두운 바다 저 쪽에서 카바이드 가스 불을 켜 아버지의‘제비호’가 다가오는 듯하다. 삐걱삐걱 노 젓는 소리, 선원들이 뱃전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파닥거리는 멸치, 파릇한 인광燐光, 바쁜 손길들이 어제처럼 선명하다. 해수병을 앓으시던 아버지의 거친 기침소리도 방파제에 부딪치는 파도 소리에 묻어온다.

제비호 노질뿐이었을까. 소출이라야 보리쌀 여남은 가마니 정도인 비탈 밭패기와 조그만 전마선 한 척이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다. 여섯 식구의 힘겨운 항해를 책임진 아버지였다. 세파에 시달리고 풍파에 부대끼며 노를 젓는 건 무척 힘들고 고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그 노를 놓을 수는 없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행여 뱃머리가 빗나갈까봐 끊임없이 방향을 가늠하면서 목표를 겨누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힘겨운데 고질적인 병환까지 무거운 짐을 보탬으리라.

아버지처럼 나도 노를 저으며 살고 있다. 내 나름으로는 젓는다고 젓는데 많이 미흡하고 어설프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식, 한 여자의 남편,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느 역할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자평한다. 부모님께서는 불효했고, 남편으로서는 부족하고, 자식

들에게는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한 회한이 아버지의 노와 겹쳐 가슴에 아픈 물길을 낸다. 그 물길로 아버지의 '제비호'가 쓸쓸하게 나아가고 있다.

부두로 돌아오니 멸치털이가 끝나가는 배가 있다. 힘든 작업이 끝나면 선원들은 흠뻑 뒤집어쓴 멸치 비늘을, 고단했던 하루를, 온갖 시름들을 훌훌 털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멸치잡이 배는 다시 만선의 꿈을 꿀 것이며, 은빛 비늘을 뿌리던 달도 숙면에 들 것이다. 짙은 안개라도 자욱한 밤이면 젖대를 닦은 등대는 만파식적萬波息笛처럼 무적으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재우고, 출항한 배들이 만선으로 무사히 귀항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털어야 할 것이 많다. 세속에 찌든 때, 여과되지 않은 욕심, 웅졸한 마음을 털어야 한다. 먼지를 털 듯 허물도 털 일이다. 오래 비워둔 방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 마음도 수시로 닦지 않으면 허물이 쌓인다.

한바탕 춤사위로 다 털고 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나 인생은 재수再修가 허용되지 않으니 어찌하랴. 지금부터라도 본분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마음을 닦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본다.



집어등이 밝은 이유

제5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김 임 순



선창이 대낮 같다. 밤의 근접을 집어등이 지켰고, 등대는 날물과 들물의 유속을 관찰하고 있다. 해로(海路)를 비추는 불빛을 따라 선박들이 들고 난다. 해무(海霧)가 걷히고 바다는 홍안(紅顔)으로 물든다. 등대가 숙면(熟眠)에 들고나면 물은 재빨리 기상(起床)을 한다.

항내(港內)는 어구(漁具)를 갈무리하는 손길들로 분주해진다. 하릴없는 삽살개가 비린내를 따라 한가롭게 선창가를 오고 간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인 듯, 선박들의 입·출항이 등대 아래서 찰나처럼 스쳐간다. 만삭(滿朔)의 임산부처럼 어창(魚艙)을 채우고 들어와 해산(解産) 후 가볍게 떠나간다.

바다는 등갯불의 지시에 따라 제 몸을 쪼개 선박의 항로를 열어 준다. 파도가 환영하듯 커커이 일어선다. 숨은여가 민낯을 살짝살짝 드러내며 배웅을 한다. 뱃고동소리가 플랫폼의 기적소리만큼 애절하게 들린다.

만남과 이별이 썰물과 밀물로 교차되는 선창. 집어등 아래로 어부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살갑게 나누는 인사말이 등 푸른 생선마냥 툭툭 튀어 오른다. 선술집에서 주모와의 하룻밤 사랑도 꽤나 즐거웠다고 너스레를 떠다. 녀살과 익살이 입담에 녹아난다. 뻥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속아 준다. 그들은 지난밤의 여정(餘醒)을 그런 재미로 깨우는가보다. 입에 뱀 농지거리가 오가도 추접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농담들이 에너지를 제공하고 활력소가 되어 팔뚝은 근육질로 단단하게 다져진다. 비린내 풍기는 선창은 걸쭉한 농주(農酒)맛이 나서 좋다. 어부들이 있기에 어촌의 풍경은 한층 정겹다.

누군가를 부르는 거친 말소리. 경매인의 호각소리. 구령 맞추어 합창하는 멸치털이 노동요 소리가 우렁차다. 길고 짧은 뱃고동소리가 분주함을 더 보탠다. 온갖 소리들의 뒤섞임으로 항구는 완전한 제 모습을 갖춘다.

산다는 게,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엇박자가 날 때도 있다. 꼬이고 뒤틀리고, 언덕거리에 심해(深海)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내는 비로소 바다를 닦았을 적에 생의 깊이를 가늠하게 만든다. 달고 쓴, 인생 살이도 예기치 못한 너울 파도를 만나면서 부대끼며 살아간다.



화려한 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다. 불빛에 홀린 생선은 미끼도 없는 홀치기 바늘을 덥석 물어버린다. 갈치는 몸부림을 치고, 오징어는 먹물을 토해낸다. 유혹의 통발이 바다 속에만 있으랴. 물에서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어판장(魚板場)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쌍끌이기선저인망, 오징어 채낚기, 장어통발 어선들이 연이어 항구에 닻을 내린다. 물 칸마다 채워진 생선들이 경매에 붙여진다.

“에~ 도다리, 광어, 잡어~”

경매인의 손바닥은 팔랑개비요, 입술은 바퀴 달린 자동차다. 생선 값이 그 손가락에서 매겨진다. 경쟁자들의 눈빛이 쓸감팽이 가시처럼 매섭다. 선주(船主)는 선원들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있다. 간조를 후하게 쳐주려면 어가(漁價)의 흥정을 잘해야만 한다. 그래서 입술이 마르고 애가 탄다.

합성이 터지고 낙찰 받은 생선들이 전국으로 유랑을 떠난다. 저 자거리에서 좌판을 펼친 끝순 할머니도 고등어 한 상자를 배당받았다. 앞니가 없어도 잘 웃는다. 손자 학용품 값이라도 보태준다는 말에 나는 늘 치맛자락을 잡히고 만다.

팔려나가는 생선이 꿈꾸는 곳은 어디일까.

아내는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과,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저녁 밥상을 준비한다. 알맞게 구워진 생선가시를 발라주며 웃음꽃을 피운다. 그런 행복한 가정에 초대받아 의미 있는 삶을 마치는 것이리라. 그 꿈은 깊은 바다에서 치어(樺魚)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게릴라 작전하듯 해무(海霧)가 엄습해온다. 집어등이 안개 속에 파묻혀 가물거린다. 등대마저 출항금지 경고를 내린다. 한 번 나가면 죽히 보름은 바다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선원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린다.

여기 또 다른 꿈의 소리가 선창을 울리고 있다.

“도 마니 버려야 해!” 모음 탈락한 우리말이 들린다. 필리핀 선원인 ‘짜이롱 민’ 씨와 베트남 선원인 응이양 안씨. 언젠가부터 선창에는 외국 선원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해동호, 순풍12호. 나는 그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왜소한 체구에 까무잡잡한 피부, 언어가 다르고 생활습관이 다르다. 힘든 뱃일을 마다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신하고 있다. 일이 서툴러 무시를 당해도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우리네 연근해 해역의 역사를 이방인이 대신 써내려가고 있다.

그들은 “면나면 송바강”을 건너와 이국땅 낯선 항구에서 닻을 내렸다. 밤이 되면 꿈을 꿀 자리를 찾아 고단한 육신을 눕는다. 허름한 모텔에서 쪽잠을 자거나, 비린내 풍기는 선실에 누워서 생애 가장 값진 꿈을 꾸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가난한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주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 게 그들이 바다에서 꿈꾸는 희망일 것이다.

그 꿈은 지극히 보편적이다. 그들처럼 내 아버지와 오라버니들 또한 사모아기지로, 혹은 라스팔마스로 떠나갔다. 오랜 시간동안 바다위를 외로운 방랑자처럼 떠돌았다. 개인의 꿈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기에 고되고 힘든 뱃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때로는 주검이 되어 돌아오거나 이국땅에 묻히기도 한다.

내 오라비가 그랬다. 가난이 원죄(冤罪)가 되어 청운(靑雲)의 꿈을 바다에서 펼쳤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천수답을 마련하고, 적산(敵産)을 개간했다. 그해 가을, 처음으로 우리 집 마당에 뒤횥이 생겼다. 그제 오라비가 부모에게 효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는 영영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다.

때로는 널뛰는 파도에 시달려 선원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소주 한잔을 털어 넣고 뒤집힌 속을 갈아 앓인다. 얼음

에 채워진 생선 궤짝의 입고(入庫)가 끝나면, 갑판에 올라와 잠시 허리를 곧춘다.

담배 한 개비 피워 물고 허공을 향해 연기 도넛을 굽는다. 팔랑팔랑 넘어가는 파도의 책갈피. 첫 페이지에 첫 줄에 첫사랑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흔들고 고생하는 아내를 떠올린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모든 게 걱정이 된다. 가족이 있어 고된 노동에도 쉬이 지치지 않는다. 돌아가며 반갑게 맞아줄 식구들이 있어서 언제나 힘이 난다.

선박들이 줄지어 항구로 들어선다. 서낭대에 매달린 만선의 깃발이 휘장(揮帳)처럼 펄럭인다. 선창에 가면 모든 게 생물(生物)로 넘쳐나서 좋다. 삶이 힘들어도 활력소가 넘치고 에너지가 충전된다. 그곳은 나의 안태(安胎)를 묻은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그네처럼 발길이 또 그리로 향한다.



제5회 등대문학상 수상 작품집

발 행 일 : 2017년 11월 29일

발 행 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발 행 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울산항만공사 고객지원팀

주 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울산항만공사)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전 화 : (울산지방해양수산청)052-228-5680

(울산항만공사)052-228-4130



등재

제 5 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대상

소설 윤재민 곳

최우수상

시/시조 김형미 소금꽃의 시간
수필 박금선(박금아) 테왁, 숨꽃

우수상

시/시조	김영옥	넙치의 잠
시/시조	유종인(육명원)	들망어업
시/시조	조주안	소라게의 집
소설	김필주(백진)	오징어와 참치
소설	조요섭	그림자고래
소설	이유겸	입수(入水)
수필	이성은	형의 그림자
수필	박하성	노를 저으며
수필	김임순	집어등이 밝은 이유

| 주최 |



| 주관 |

